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木)
本紙十二面朝夕刊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秩父御名代宮兩殿下 御渡英의御首途

東京驛頭嚴肅한奉送

友邦英帝國의 光輝榮位한戴冠式典 죠ー지六世陛下 및 同皇后陛下의 戴冠式에 天皇陛下御名代로서 御參列하시는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今十八日 英國皇帝陛下게 御贈呈의 大勳位菊花章頸飾、同皇后陛下게 御贈進의 勳一等寶冠章을 御携行 海路長途의 御東航、加奈陀經由하야 一路英京倫敦에 出發하시엿다 此日帝都는 御名代宮兩殿下의 光輝게신 御出發을 御祝賀하시는平和한春色이 華麗하게 빗나고 全市는日章旗를 揭揚하야 奉祝하고 赤坂表町의 御殿에는 朝從御奉送을 爲하는 參殿者 相接하야 慶色이 漲溢하얏다 兩殿下께서는 御同伴하사 御邊姿로마치신 後 殿下께서는 陸軍御通常禮裝에 大勳位副章御佩用 妃殿下께서는 로ー브·몬단트로 御旅裝을 整顔하시고 宮家職員御緣故者等에 御惜別의拜謁을 賜하시고 午後一時宮中御差遣의 御召自動車로 山口御附武官、山座御用取扱은 御陪乘、今村別當、前田事務官等은 列車로御奉供 御殿奉仕者奉送裡에 御出門 一時八分兩殿下의 海路御平安을 奉禱하고저 堵列奉送하는 都下各學校男女學生生徒及 青少年團、在鄕軍人、一般市民等十數萬에御會釋을賜하시면서 二重橋前에서는 宮城을 御遙拜하신後 東京驛에向하시엿다 同驛에는 天皇陛下御使 百武侍從長、皇后陛下御使 廣幡大夫、皇太后陛下御使大谷大夫、高松宮同妃、三笠宮、閑院元帥宮、伏見宮을 비롯하사 各皇族殿下 및宮家御使、林首相以下 各國務大臣、前官禮遇以上의 顯官、御親族 크라이븐英大使、브루스加奈陀公使以下 各國大公使等 廳內使、梅、竹의 各休憩室에 先着 兩殿下께서는 同一時二十分 中央에 御着車、階上牡丹間에 入하사 御小憩後 三陛下의 勅使御使、各皇族殿下에게 御對面 御奉送의 御人事을 바드시고 林首相以下 前官禮遇者以上 및 大公使等에 謁을 賜하시엇다 同四十分頃 殿下께서는 近藤新橋運輸事務所長、天野東京驛長의 御先導로 三陛下의 勅使御使、各皇族殿下 任官、橫山警視總監、舘東京府知事、牛塚東京市長 白根宮內次官以下 宮內省部、局長等을 隨케하사 홈에 나시사 濱僚게 御擧手、妃殿下도 御會釋을 各各奉送 諸員에 賜하시면서 後部로부터 三輛째의 一等御召車로 御乘車、橫濱埠頭까지 御奉送의 高松宮、同妃、三笠宮其他 各殿下께도 所定의 御召車로御乘車 松平式部長官以下隨員一同도 各乘車御奉供 御出發을 奏除하는 各列車、電車홈에는 一般市民이 入場하야 兩殿下의 御旅程無恙을 御祈念하면서 奉送 定刻午後一時四十五分七輛編成의 臨時列車는 소리도엄시 嚴肅한空氣中에 光榮의 歡呼中 發車하엿는데 兩殿下께서는 親히 御召車內에 起立하사 奉送者에게 御會釋을 賜하시면서 御壯途第一步를 橫濱에 進行하시엿다 (秩父宮兩殿下의 御近影)

增稅修正案에 對해 政府政黨間對立

大藏省事務當局의反對로 最惡의境遇엔 增稅案不成立?

【東京電話同盟】臨時租稅增徵案에對한 政民兩黨의 共同修正에 關하야 賀屋次官이 反對意向을 表明하엿기때문에 問題는再轉하야政府政黨의 對立을 招來하야 俄然紛糾의 兆를示하게되엇다 即 大藏省側의 意向은

政民兩黨의 共同修正條項은 그主旨에잇서서 承服할수업슬뿐아니라 그우에 右에依한歲入缺陷百五十萬圓에 對하야政黨側이 適當한 代身財源을發見치못하는 以上政府로서는 이미十二年度豫算編成에 際하야 自然增收를 豫測하고잇스므로 同額의 赤字公債를 發行할밧게 다른方法은 업다 그러나 政府는 此際增稅案의 主旨에 依하야 또 赤字公債增發을行함은 承認할수업다 고한나 이에對하야 政民兩黨은 代身財源을 提出하야 이미 法人에對한 國債利子課稅가 昭和十二年四月一日以來 終了한다면 次年度부터 이것을 適用한다는 方法도 考慮하고 잇는데 議院이 增徵을 豫期하는修正을 行함은 將來에 惡例를 남긴다는 見地로부터 이것을 하지안키로 한것이다 政府는 自然增收에 對하야 이미 十二年度豫算에도 豫定하고잇다고하나 百五十萬圓程度의 增收가잇는것은 從來實績에 빗추어 明白하야 旣定方針을進行하여도 何等支障은업다 고한나 이대로進行할時는 假令增稅案이豫定과가티 十八日衆議院을通過하야 貴族院에 回附되더라도 政府가不同意를 表明하기때문에 再修正을 加하야 드듸여 兩院協議會開催에까지 이를것이며 最惡의境遇에는增稅案의不成立도豫想되므로 政府政黨이 모도 目下局面打開에 焦慮하고잇다 그러나 겨우百五十萬圓의修正案으로 正面衝突을 招來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아니하므로 結局 何等解決을 發見할것이라고 推測되나 그리고 同問題는 豫算執行上 支障이 잇나하더라도 陸海軍豫算의 保留額四千六百萬圓同樣豫算編成形式論으로서 論議되게될것이다

大藏事務當局反對理由

【東京電話同盟】政民兩黨에依한 增稅案修正은 結局百五十萬圓程度의 減收를 發生케함으로大藏省事務當局은 十七日夕刻增出委員長으로부터 經過報告를聽取한後 十八日委員會에 臨할態度에對하야 協議하엿는바 左와如한理由에 基하야 修正案을 그대로 應諾할수업다는대 意見이 一致하엿스므로 十八日委員會開會를 앞두고 最後的折衝을 거듭할터이라한다 이修正案을 變更치안는境遇에는 委員會席上 政府는修正案에 同意할수업다고 答辯할박게업다 即 大藏省當局이修正案에 反對하는 理由는左와如하다

一、이修正案은 理論上承服할수업을뿐아니라 이에依하면 減收額은 百五十萬圓及 稅收入의缺陷을 生하게된다

一、勿論自然增收의 實蹟에依하야 이程度의減收를 補塡할수는잇스나 豫算編成의 形式上으로보아 이미豫算案修正案이 衆議院을通過하야 貴族院에서 審議되고잇는今日 政府가 自然增收의豫想變更을함은 實際的으로 應할수업나

一、그러타고 減收補塡을爲하야 다시赤字公債를 發行함은 只今取할方法은아니다

그런데 境遇에따러서는 結城藏相이 政治的折衝에나와 解決을圖하는것이아닌가 推測된다

政府政黨間妥協未成

【東京電話同盟】增出增稅委員長은 十七日午後六時院內에 賀屋大藏次官을 訪問하고 政民兩黨의共同修正案及 附帶決議案을提示하고同意를要求하엿나 이에對하야 賀屋次官은 法人所得의 國債利子課稅時期適用에關한 增徵案에 代身財源으로 議院側으로부터 承認한다면 右修正에 同意할것을 答하엿는데 그代身財源을 議院側으로부터 承認하는것은 將來惡例를 남기는것임으로 兩黨이 모도이것을 拒否한때문에 增田委員長은 다시政府의再考慮를求하야 兩黨協議員은 政府의意向如何에 不拘하고 豫定대로十八日午前中에 委員會를열고 兩黨의 共同修正案및附帶決議를附하야 議決、午後의本會議에 緊急上程할豫定이다

貴族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十八日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三十分 開會勞頭 近衛議長으로부터 德川家達公을 爲始하야 十二議員은 精勵格勤力을 憲政의 淸美로하엿다 따러서 그積年의功勞에 對하야 院議로서 表彰하기바란다 고德川公을 爲始하야 十二議員의氏名을 읽고 그表彰을 議場에諮하매 德川公以下 被表彰議員을 除한全議員起立하야 이에賛成하엿다 그리고 近衛議長은 德川公을 爲始하야 十二議員에對한別項과가튼 表彰文을 읽으며 滿場이이에 賛意를表하엿다 近衛議長 表彰文은 議長이適當히 贈呈하겟다 고述하매이에對하야 德川公이登壇 勤續議員으로서 表彰된데對하야 人事를言한다 我等十二名은 本院에 多年在職한것으로써 院議로서 鄭重한 表彰을 바든것은 分에넘치는 光榮이라고思한다 立法府의 一員으로서 在職하면서 微力 表彰을 바들만한 功勞는업섯다 光榮이잇는 決議에對하야 感銘을 바게업는同時에 漸愧에 不堪하는바이다 今後크게 奮勵努力奉公의誠을 다하야 日本憲政發達을 爲하야 微力이나마 다할려이다 玆에 一同을 代表하야 人事를하는同時에 또 甚深한謝意를表하는바이다 고 謝辭를述하매 全員의拍手가 이러낫다 繼續하여 日程에들어가

一、郵便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衆議院送附)을上程 兒玉遞相 提案理由를說明하고 質疑에들어갓다 三室戶敬光子(硏究) 郵便切手中에 日本郵便이라고 써잇는데 이것은 國體明徵上 改正할必要는업는가

兒玉遞相 郵便切手中에 써잇는「日本郵便」은 今後「大日本帝國郵便」이라고 改正하기로 方針을決定하엿다 고答하고 十五名의委員에 附託하고 今日議案全部를마치고 午前十時五十三分散會하엿다

佛國共產黨에서 팟쇼團體解散要求

不然이면人民戰線政府와袂別 對策如何론內閣龜裂

【巴里十七日發同盟】巴里郊外크리쉬에이러난 左右兩派의 衝突事件은 政界에 波瀾을 惹起하야 共產黨은 當日警官隊의 行動을「共產黨에對한警察의虐殺行爲」라斷하고 峻烈한 非難을加하엿다 블룸首相은 十七日午後六時閣議를開催하야 對策을 協議할터인데 共產黨員은

一、政府는 即時드·라·록크中佐가引率한 파시스트(團佛國社會黨)을解散시킬것

一、政府가 이에 應하지아니하면 共產黨은 人民戰線政府와袂別하고 黨出身閣僚를退辭케한다

고 情堤的態度를 取하고잇서萬若政府가對策을 一步그릇하면內閣에龜裂을 發生할 憂慮가 잇스므로 政府는 苦慮中에잇다

官民合同의 醫藥制度調査會設置

【東京電話同盟】十七日午後의 國民健康保險法案에關한 衆議院委員會에서 民政黨의 武知勇氏(民政)는 政府는 保健案을 確立키爲하야 官民合同의 醫藥制度調査會設置의 意向이잇는가 이質問에對하야 河原田內相 現在時局으로보아 진실로 機宜에適當한것이라고思한다 誠意로서 考慮하고 될수잇는限 實現에 努力한다 고言明하엿는데 內務省의 方針도 大體 조線의調査를마치고 調査機關의 必要를 痛感함으로 今議會終了後 關係各省의 官吏衆議院議員貴族院議員醫藥學者等을 委員으로하는 官民合用의 醫藥制度調査會(名稱未定)을組織하야 大體左와如한 事項을 諮問하게될터이다

一、醫藥機關의整備統一

一、醫療費에關한事項

一、醫藥分業에關한事項

一、醫師制度에關한事項

一、救療制度에關한事項

一、藥劑師制度에關한事項

一、賣藥制度에關한事項

政治問題를떠난 純經濟的提携는 中國側依然難色

經濟視察團個別的會談結果 政治的解決을要望

【南京發電】日本經濟視察團一行은 上海에上陸한以來 連日中國側政府要人、財界有力者와 交驩을 繼續하야 不眠不休의狀態인데 南京入以來 二日채의 十六日午前中의 自由行動時間을利用하야 各其個別的으로 中國側要路者와 會談을交하고 日中問題에對하야 本格的으로 意見交換을行하엿다

卽兒玉團長은 同日早朝로부터 周作民氏와 長時間에 亘하야 首都飯店一室에서 兩國의經濟提携、特히 金融問題、對中經濟援助等에對하야 懇談을行하엿스며 加藤興銀總裁도 中國銀行南京支店에 吳震修氏를訪問하고 東京出發前부터 여러가지電報로 妥協한 兩國銀行間의特殊案件에對하야 懇談을 遂하고 其他各團員들은 各關係方面을 歷訪하엿다

一行은 歷訪하야 經濟視察團으로서 使命을達成키爲하야 努力할豫定이며 境遇에따러서는 一行은一般通商兩國船會社의提携、棉業開發、紡織發展等諸問題에對하야 具體的談話를進行할 意向인데 日本關係의現狀으로보아 一行은極히 愼重한態度를取하며 中國側도 日本側의 意向을 打診할模樣인데 中國側은 依然히 政治問題를떠난 經濟提携에 難色을보이여 먼저 政治問題解決의 必要를 力說하고잇는 模樣이라 한다

日本拒否報道와 英政府當局見解

十四吋制限條項에 關해

【倫敦十七日發同盟】英政府는新倫敦海軍條約參加通告의期限을二週後에앞두고 日本政府의回答을 鶴首하고잇는데 十七日新聞電報는 日本政府가 備砲口徑十四吋制限條項에對하야 不受理의通告를할것이라고 報하야 英政府當局은 적지안케 憂色에싸이여잇다 日本政府의回答이 果然如左하다면 英政府의建艦方針에도 重大한影響을 齎來할것이라고하야 海軍專門家는 大要左와如히 보고잇다

一、日本政府가 備砲制限條項에 拘束되지 안는다면 英海軍도 十六吋로할必要가잇스나 新建造三萬五千噸主力艦에는 重量其他關係上 十六吋砲搭載는困難하다

一、新年初到建艦에 着手한三萬五千噸主力艦二隻은 十四吋備砲를 豫定한것이오 또以外主力艦三隻을 建造할터인데右日本政府의 回答및 이에對한米國政府의 反應如何로 英政府도 從來方針을 再檢討할必要에迫到케될것이다

一、勿論英國海軍專門家中에도三萬五千噸主力艦에 十六吋砲備砲도 可能하다는 見解를가진이도잇는데 如何間지 日本政府의 拒否에依하야 新倫敦條約의 質的制限條項은 全面的으로 重大한缺陷을 發生하야調印國政府가 모도 이에 無關心할수는업다

一、特히米國政府가 十四吋制限條項을 겨우受諾한 事情도잇서서 日本政府의 拒否回答을 多幸이라하고 來七月起工의新主力艦二隻에 十六吋砲를 備付할은 必至의情勢임으로 右專門家間에 三萬五千噸 主力艦에 十六吋砲搭載可能論도만타

一、備砲制限의 解消한結果 型艦大量의 誘致하야 五萬噸主力艦建造競爭時代를 實現하는것이아닌가한다

共通戰線갓지못한 獨蘇兩國은不戰乎?

波、元首相의獨蘇接近說

【日蘇通信】今日獨逸과蘇聯邦間에 行하고잇는思想鬪爭에參加하지말자는 波蘭國民에게 警告한論文이 요즘元首相시코르스키將軍署名으로 波蘭의半官報크리엘·왈소스키紙에 揭載되엿는데 그要旨는左와如하다。

波蘭의地理的地位는 二個의一國一黨國家의 緊爭에 決定을 參加하여서는아니된다는것을警戒하고잇다 大塞二國이 衝突하면 最初에犧牲되는것은 波蘭임으로써이다 獨逸의反蘇運動은 蘇聯의南方及 東方의地域을目標하고잇는 獨逸帝國主義의 一變裝에不過하다고하나 二國은 共同한 戰線을갓지못하고 現在大體均等의 武力을 備하고잇스므로 兩國은 絕對로 戰爭하지안을것이라고 斷言할수업다。獨逸의 實的優越은 疑心할 餘地가업스나 蘇聯의 巨大한 量的優越은 明白한 事實이므로 蘇聯의 廣大한 地域은 結局 戰爭의 結果를 蘇聯에 有利케 決定할것이다 그러나 萬若 波蘭이 決定的으로 反콤무니스트·블럭에 加擔하게된다면 問題는 다른局面을 展開할것이다。

그러나 이點에잇서서 波蘭의 政策은 佛蘭西와의 同盟의 本質的基礎에 一致하지아니하면 안되나。情勢는 히틀러ー氏가 對蘇挑戰에 對하야는 今日 從來와가튼 決意를 表하지안는 事實을 示하는 模樣가다。卽 新한 不測事件(戰爭)은 루덴돌프將軍及 獨逸陸軍司令官프릿치將軍에 依하야 正式으로 遮止되엿다。

히틀러ー氏가 그自身당길로及 伯林의 蘇聯條約을 支持하고 어느點으로보아 蘇聯에 商業的크레디트를 提供하며 境遇에따러 最後에는 軍事的크레디트까지도 許할지도몰은다는것인데 이것이 全然업슬것이라고도 말할수업는것갓다 한다

米主力艦新造

一隻建造入札公告

【華府十七日發同盟】米國海軍은 近近三萬五千噸級 新主力艦二隻의建造에 着手하기로 되엿는데 海軍長官은 十七日民間造船會社에 對하야 그中一隻建造入札을行할旨를 公告하엿다 新主力艦의建造費는 最初各五千萬이라고豫測하고잇섯는데 材料騰貴로 各六千萬弗을 要할豫定이다

人事·集會

▲大竹內務局長 二十日午後三時半京城驛發新京에出張

▲姜弼成氏(黃海道知事)新任人事次來社

▲吾스、레버兩氏歡迎晩餐會=今番 朝鮮을 訪問한 米國北長老教宣敎部 總務 吾스、레버兩氏의 歡迎晩餐會를在朝鮮親知의 發起로 三月廿日(土曜日)午後六時 市內敦義町 明月館에서 擧行

▲穗積總督府土木課長 二十日午後三時半 京城驛發 一週間豫定으로 新京에出張

▲賀樂氏(海州聯合院長)入京人事次來社

▲朴文權氏 賀樂氏와同伴來社

▲沈影燮氏(京城高等音樂學院長)新任人事次來社

▲安基永氏(同敎授)同上

八面鋒

◇增稅修正案에對한 大藏事務當局反對로 政府政黨間 俄然對立。

◇主要한 理由는 減收額 百五十萬圓에잇다고。

◇百五十萬圓이란돈이 個人에게는 巨額이지만 國家非常時財政으로 본다면 九牛一毛。

◇二十八億의 尨大豫算도 無難히 通過될모양이오 政府提案의重要法案도 거이全部 無風通過。

◇非常時 드삼아래 怯먹은政黨人이 服從만으로 一貫하고보니 이래서는 非常時演劇으론 멋이적다는 셈인가。

◇四月一日부터 郵便料金을 引上實施하기로 決定。

◇쌀갑、나무갑、옷감갑、그리고 郵便料金까지도 引上되는이때에 勞賃만은 据之不動。

크레기大使倫敦出發 米國首腦部와協議?

【倫敦十七日發同盟】新駐日大使에任命된 크레기ー氏는 十七日倫敦을出發經育에向하엿다 米國에는約三週間滯在할豫定인데 渡米의目的은 表面으로는私用이라고稱하나 實際로는 米國政府首腦者와 海軍問題에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는것이아닌가 推測된다

前駐伊佛大使 一婦人에게狙擊

【巴里十七日發同盟】前駐佛伊太利大使 드·삼브릐伯은 十七日午後 巴里北停車場으로부터 브륏쎌에 向하는列車에 타고저 푸랫·홈을 거러갈때 一婦人에게突然 피스톨로 狙擊되여 彈丸은 腹部에 命中하야 그대로 昏倒하고마럿다 伯은 即時附近病院에入院시켯는데 命만은 남을模樣이다 一方狙擊한 婦人은即時逮捕되여 嚴重히 取調를當하고잇는데 데이모다ー푸夫人이라고 稱하고 羅馬當時삼보랑과 知己이엿다고 말하는外頑强히 緘口하야 係官을 腦殺케하고잇다

最少限度六日間 會期延長不可避

【東京電話同盟】貴族院豫算總會는 十七日까지에 總會를 거듭하기 벌서八回나되고 會期도겨우 一週間밧게 남지못하엿는데 質疑通告者는 增加하는 便이오 十七日은 交友俱樂部의 石川三郞氏가 農村負債整理에關한(農相)質疑가잇섯고 通告者二十一名中 終了한者 겨우十名밧게되지안는다 이런狀態로 進行한다면 會期中에 質疑만도 終了하지못할 形勢임으로 豫算委員長 林博太郞伯은 그對策에苦慮하고잇는中이다 그런데 從來例에徵하면 會期가 切迫하는同時에 自發的으로 質疑를 保留하는者 又는 質問事項도 比較的簡潔히하는 傾向이 잇섯스므로 暫時 이대로 審議를 進行하야 그 進行을 본後 二十二日頃 林委員長은 政府豫算委員과 協議하야 分科會以後의審査方針並分科日數를 決定할 方針인데 豫算委員中에는 非常時豫算임으로 分科를 中止하고 總會만에終始하야 會期中에審議를 終了케하자는意見도잇다 이에對하야 硏究會의 大河內輝耕子는 本豫算案은分科에옴김은勿論、그期間도最少限度로四日間은必要하다 는旨의意見을 委員長에開陳하고잇는程度이다 臨時租稅增徵法案豫算關係의法律案審議期間을 考慮하야 結局最小限度六日間의會期延長은 不可避하다고보고잇다

小兒服 오ー바 毛絲 製品 (製造卸)
商店에限하야商報送呈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現金本位 薄利主義
尾崎商店

鋸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木手道具、理髮器械、金物一般
專門製造直賣、信用販賣日本一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武村製作所
電話 一七八五番 振替大阪十六四七番

百圓資本으로文房具店을開業합니다
カタログ進呈 要郵券二錢
大阪市東區內久寶寺町一丁目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電話船場四七七七番 振替大阪三一五七三番

高級別誂注文 品質仕立은責任保證付
創業明治二十八年
見本進呈(申込은大阪에)
廿五圓부터 別誂注文合服折衿三揃
二十圓부터 別誂注文合オーバ
大阪市谷町一ノ一四 羅紗問屋 正司憲商店
▲特約店 咸興府春日町二의五 林華商店 全北裡里榮町 鄭斗鎬商店 京畿道水原邑內 大丸洋服店 慶北善山邑 金剛洋服店 群山府榮町 丸正洋服店
▲特約店募集(各地에一店式이오니速히申込하세요)
京城府櫻井町二ノ一八一 朝鮮總代理店 田中博商店

아ー오ー 結核 免疫元
有馬、青山、太田 三醫學博士 創製
製法 日、英、米、加、愛蘭、專賣特許
AO 아ー오ー!는發賣以來滿十年、이동안 日本은 勿論거니와 世界各國에잇서서 多數實驗醫家에愛用되여 恒常優秀한 效果에對하야 多大한信賴와 賞讚을博得하고잇다
AO 아ー오ー는 過去二十年以來 그發見者와多數硏究員에依하야 年年硏究의究硏을거듭하고 改良에改良을加한 今日에잇서서 免疫元으로서의 完璧에 達하여잇다
AO 아ー오ー는 卽有害無益한아렐겐을 含有치안코 必要不可缺의임노겐만으로된 獨特한 藥劑이므로 其使用함에잇서서 조곰도 不快한副作用이업시 效果는顯著하다
AO 아ー오ー는 治療에는 모다第一號를써서 輕症肺結核(早期浸潤、肺門浸潤、肺門淋巴腺結核等)은勿論 腹膜結核、肋膜炎、皮膚結核、外科的結核、泌尿生殖器結核等에對하야 特히卓効잇는것이 多數大家의臨牀報告에依하야 證明되여잇다
AO 아ー오ー는 豫防的으로도 應用되여 就中 潛伏結核 淋巴腺體質 虛弱體質 結核疑症等에 對하야 흔히 놀낼만한 效果를 發揮하고 所謂腺病質兒童과虛弱學生에 對하여 其發病豫防과體質改善을 爲하야 試用될만한 最良의方法이다 이境遇는 第二號를使用한다
AO 아ー오ー는 또 診斷的으로도 優秀한 成績을보이고 治療를 兼한 無害의 診斷法으로서 應用된다 卽一般醫者에는 結核諸症의 存否確認 患者에는 豫後判斷等에 모도 良好한成績이 實證되여잇다 이 境遇는 治療法에準하야 第一號를使用한다
AO 아ー오ー는 其外에 使用回數가적을뿐더러 使用法이 極히 簡易하여 無危險副作用도 全無하므로 實地使用할에잇서서도 조곰도 念慮할必要가업다 詳細한 AO의 解說使用法等은 發賣元에請求하면 곳贈呈함
發賣元 須美商會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四〇番地

十자가상에 예수
「빌나도」는 당시에「로마」관원으로서「유대」인의 송사를 바다 잡힌「예수」를 너무나 혹독하게 처리하엿다 잡아내여 채찍으로 따리기도 하고 가시를 엮거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씨우고 홍포를 닙히고 조롱하며 빰을 치고 얼골에 침을 배앗다 이러케 가진 짓을 다하엿지만 법률과 량심에 비최여 본다면「예수」에게 아모런 죄도 업슴을 공언하지 아니할수가 업섯던것이다 그래서 한 죄도 업슴을 알게한다고 재삼 성명하고 마즐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함을 듯고서는 주두려워하야 조용히「예수」께 뭇기를「네가 어데서 왓느냐」하엿나 그러나「예수」는 아모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섯다 이「빌나도」는 법을 세우지 못하고 도로혀 법을 굽히고 량심을 짓밟는 무장공자의 인격을 가진 자이엿나「유대」인의 각청에 못견대서「예수」를 내여주어 十자가에 못박게하엿다 그래서「예수」는 十자가 형틀을 지고 해골 곳으로 나가서 十자가에 못박혓다 동시에 두사람도 함께 못박혀서 하나는 올흔편에 잇고 하나는 외편에 잇섯다 그런즉 十자가 셋이 잇스니 한가운데는 세상의 구주되신「예수」가 만민의 죄를 담당하야 무죄한 죽엄을 이루섯고 량편에는 강도 두사람이 달녓스니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세상을 표방한 인물이라 할수잇나 그런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야 그령혼을 구주「예수」께 맛기고 한 강도는「예수」를 비방하엿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두가지 구별이 잇는것을 표시하엿나 이것을 부표로 보인다면 이러케 하여서 세상으로서는 구주가 잇서야 할것을 말하는것이다「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섯스니 누구던지 저를 밋으면 멸망지안코 영생을 엇으리라」하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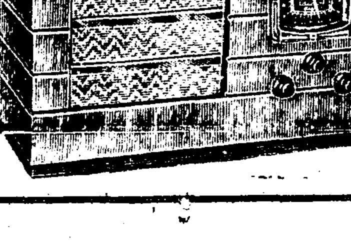
京城鍾路二丁目 時計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癩病
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한다 風病에걸니기만하면그병으로해서 一生을마치게되는것이다그러면風病은꼭不治病인가하면決코不然하다 何由오하면從來漢醫는이것을簡單히風이라고해서所謂治風한다는藥만을使用하엿고癩菌을알지도못하엿든까닭으로萬에一이라도治癒된例가無한것이다治癒는姑捨하고적은効果도본者가업다그러나本院은有名한殺菌劑特히癩菌을溶解하는藥과또는喰菌하는細胞를增進하는補血劑를配合完成한有名治癩劑를發明하기에至하엿다故로本病에苦痛밧는분은躊躇치말고速히强壯チモール丸을服用하라不幾日에本劑의偉大한効果를證明할것이다그리고本劑는도모지禁忌할飮食이업고무엇이던지攝取한다特히肉類와魚類其他一般滋養食物로攝養할사록效果가速한것이다또는本病으로서 表面에結節과潰瘍과落眉와癩風과顏面浮腫等症狀이發現된患者에限하야强壯チモール丸을外上으로드리오니勿失此機하고 곳照會하시오(返信料添付照會乞) 風病療養法及其他感謝狀無代進呈함但葉書照會는不應함
釜山府草梁町四春藥院內癩病根絕硏究所白 大邱支店 大邱府南龍岡町裁判所前四春藥院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三丁目、同本町一丁目、龍山、仁川、平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湍、康津
出張所 三千浦、統營、馬山、鎭海、釜山本町、同牧ノ島、同富平町、蔚山、方魚津、元山、永興、咸興、端川、吉州、淸津、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載寧

京城基督敎青年會學校
英語科(夜間)(第一學年五〇名 二、三學年若干名)(願書四月二日限)(規則書要郵券)
商業科(晝間三年修了) 認可申請中
京城府長谷川町 公會堂東上

粗品進呈
今般左記場所에電氣具及ラヂオ卸商을開店하옵고ナショナル製品을專門으로卸賣하오니多少量不拘하시고注文하여주시기를千萬伏望이옵니다
松下電器販賣代理店
京城府學雲町一〇一
三和電機商會
電光③一六九五番 振替京城二六七六六番
營業所滿洲國門、牡丹江



瑞山面協議員補缺選擧에 金生植君을最適任者로推薦함
面內有權諸賢貴體連安하심仰祝하오며就告今月二十三日施行될瑞山面協議員補缺選擧에東門里金生植君을責任推薦하오니照亮하시옵소서 君은性格이快活寬大한바社會事業乃至地方施設에物質精神을기우려這間도幾多의美蹟이顯著함은自他가共認하는바라더욱히君은恒常明朗하야구김이업고事理에밝아勇斷力이豐富하며萬兔大한快士이므로우리面議員資格이充分하고도오히려남는지라우리面四千戶큰살림사리를보살피는한사람으로絕對不可無의資格者이옵기萬萬責任을지고推薦하오니面內有權者諸賢은數年만에一次式잇는이드믄機會에重緊한一票를金生植君에적주시옵기를願하옵나이다 큰살림사리干涉에우물주물또한各齒하고事理에어둔사람選出을遠慮하시고權在唯我라는現實에決코自慢心업시情實關係를避하야깨끗한一票를우리瑞山일군인金生植君에게던저주시와一萬面民의企待에어긔러짐이업도록해주시면우리瑞山을爲하야千萬感謝하온同時同慶하올이다 한편마지안케사오며重且大한責任을가지신고一萬面民의注目의的이되야게해신有權諸賢에個人的立場을超越하야遠大한뜻으로懇切히顧하나이다
昭和十二年三月十五日 瑞山郡瑞山面有志一同白

從來의 積弊로 보아 不正申請을 牽制

至急電話의 規則을 改正實施

登記料와 架設費를 假納시켜

체신국에서는 오는 이십오일부터 일에동안 십이년도 전화지급개통(電話至急開通) 신청을 전조선일제히 접수키로되엿는데 근년에 각종사업의 호경기에따라 전화수요가 가속도적으로 증가되어 소화칠년도에는 지급개통신청이 겨우 륙백칠십개밧게 안되든것이 소화십일년도에는 일약이만사천개에 달하야 얼마나 전화의필요를 느끼고잇는가를 수짜로 증명하고 잇는데 예산관계상 도저히 전부의 신청에 응하지못하고 겨우 추첨에따라 일부의 수요에 응하여오는관계상 전화의수급(需給)이 균형을 엇지못하야 전화시가(市價)가 평장히올라 평균가설료(架設料)의 삼사배에 달하는 현상임으로 실상 전화를가설할필요가 업는사람까지가 지급개통전화를 신청하야 이것으로 리익을 어드려는 투기적신청이 만허서 전화의공평한 보급을 기할수업는 정세에 잇슴으로 체신국에서는 이가튼불순한 신청을 일소하야 절실히 전화를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보급시킬 목적미테 전화규측을 개정하야 지급 개통신청을 바들때에 가입등기료(加入登記料)와 및 전화가설료를 가납(假納)식히는 동시에 개통후 이년간 명의변경(名義變更)전화기이전 전화번호부에 타인명의 게재등을 금지키로 되엿는데 가입등기료는 그지방의 소정액전액(全額)을 가설료는 이백원이상의지방은 그이분의일을 이백원이하의 지방은 그삼분의일을 가납식히기로 되엿다 한다 그런데금년도에는 례년보다 전화가설수를 증가식힐 계획미테 예산안을 제출중으로 금년에 개통할전화 개수는 전조선 각지방 사정을 조사하야 예산액과마추어 공평정당하게 하겟다고한다

電話投機에 鐵槌

需要의 公平圖謀 不當市價를 抑壓

不正이 發覺되면 先納金을 沒收

遞信局 岩男 監理課長 談

근년에 조선내의전화수요수는 놀랠만치격증되엿스나 예산관계상 일반의수요에응하지 못하고 겨우그일부의수요를만 충족식히고잇는관계상 전화의시가(市價)가앙등하야 일종의투기대상이되여서 전화의공평한 보급을방해하고잇슴으로 십이년도에는 전화규측의 일부를 개정하야 가입등기료와및전화가설료의전부또는 일부를가납식히는동시에 한사람으로서는 여러개전화를신청치못하게하고 또다른사람을위하야 명의를빌려주는것을 금지하야 만약이것을 위반한사람에게는 가입또는 가입신청을취소하고 취소된경우에는 가입등기료 밋가설료를 돌려주지안하야 부정수단을 일소키로되엿다 이로말미암아 실제전화를 필요로하는사람은 만흔리익을 볼것으로 생각한다운운

貴金屬窃盜犯 三名一時被捉

십칠일 오전두시부터 여덟시까지 사이에 부내 본정(本町)이정목사십구번지 삼천보석점(森川寶飾店)의 여프로 뚤린 창살을 어떤자가 깨트리고 빗장을 돌린다음 내부에 침입하야 순은제술잔 과도(果刀) 담배갑 십팔금도금반지 시계 꼿병 양복바지등을 훔쳐가지고 다라나갓는데 현상을 검색한 본정서원이 도난당한 물품으로보아 이범행은 두사람이 상의하고 이귀금속을 훔처서 이것을 녹인다음 지금상(地金商)에게 팔려는자의 소위라는것을 인정하고 각방면으로 범인을 수사하든중 십칠일 오전나섯시쯤에 부내마장정(馬場町)오십이번지에 잠복하고잇든 범인 세명을 일망타진하엿다 이들은 함남(咸南)출생의 전과일범 박준이(朴俊伊)(三)와 가튼 전과일범 박덕영(朴德永)(二)과 충남(忠南)출생 전과일범 김진호(金鎭浩)(三)의세명으로 작년년말경부터 부내각

"執務中의 常用語를 國語로 使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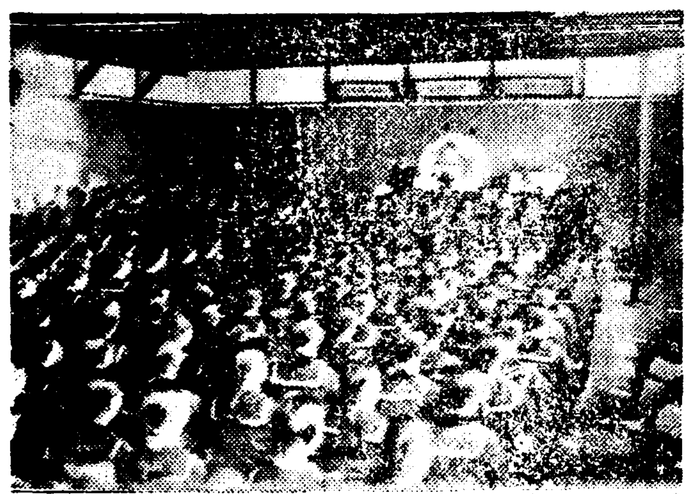
官公吏用語問題에 對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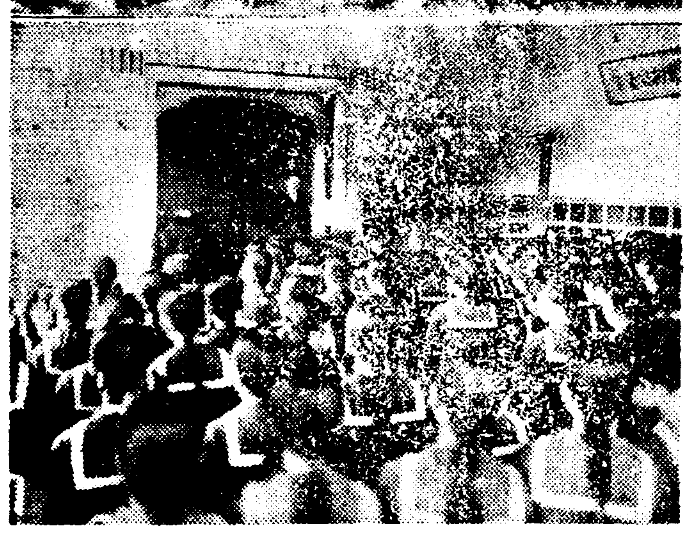
鈴川文書課長 談

총독부(總督府)에서는 국어상용장려에는 각방면을통하야 로력중인데 이에대하야 총독부령천문서과장(鈴川文書課長)은 십일오전십시 다음과가티 정식으로발표하얏다 국어보급에대하야는 시정이래 가장노력을하야 노력하야오는중인데 그성적이매우 현저하다 그런데 이것의철저를 기하는것은 가장긴절한것으로 특히관공리는일반의의표(儀表)로되는고로 이에솔선하야 그모범을보이도록하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오늘날까지 다음과가튼의미의 통첩을각도에발하야될수잇는대로관공리는 국어를사용하도록 하얏다 그리고 국어상용장려문제에관하야 이것을리행하지 안는사람은 처벌한다는억측을 세상에전하는경향도 잇는모양이나 이것은 원래그와가튼 일이잇슬수가업는것임으로 이점에잇서서 오해가업도록하여야 할것이다

◇通牒要旨◇

국어보급에관하야 제반의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반에게 노력하도록하는중인데 이미국어에숙련하야 직을관공서에 방출하고잇스면서 집무중에 아직까지 국어를 사용하지 안는경향이잇스니 이것은 심히유감으로생각하는바임으로 금후관공서관리에 잇서서는 집무중에될수잇는대로 국어를 사용하도록노력하기를특히바라는바이다





三校引繼請願書 受理? 拒否?

載寧實行委員會終幕

【載寧支局電話】숭전, 숭실, 숭의세학교의 인계경영청원서의수리여부를 결정할 재령서모힌 조선선교회본부실행위원회는 십칠일오후열시에 폐회하엿는데 위원장소텔도(蘇悅道)씨이하 위원제씨는 당국의 주의라는 구실로 세학교 인계경영청원서 문제에대하야는 일체 대답을 피하엿다

積善町强盜犯人은 被害家雇女아들

證據品으로 覆面黑布를 發見

十八日鍾路署에 被檢

지난륙일새벽두시쯤 시내적선정(積善町)이십칠번지 권영국(權寧國)씨의집에 드러가 식도로 그의처 손(孫)씨를 위협하야 현금약륙원가량이 드러잇는 지갑을빼아서가지고 다라난 강도범인은 그간종로서에서 맹렬히수사한결과 진범인은 십칠일아침 필운정(弼雲町)이백삼십번지의 송영산(宋英山)(二)으로 판명되여 방금취조중이다 전기범인 송영산은 그의어머니 김(金)씨(二)가 피해자권씨의집에서 고용사리를하고잇섯는데 송영산은 근일 활동사진구경등으로 부당한 돈을만히쓰고잇서서 종로서에서는 이점에 의심을두고 그를 경찰서로인치하야 취조한결과 그범행을 자백한것이라한다 그리고 물적증거로는 범행당시에 써두고간 협박문과 복면헷든 검은보재기 각과 그가복면헷든 검은보재기를발견하엿다고한다(사진은범인)

驪州楊平서도 百戶가 滿洲에

경기도 려주(驪州) 양평(楊平)두군관내에서 만주국간도연길현(延吉縣)으로 이주키로 되는 가백호는 오는이십칠일 도청(道廳)직원인솔미테 목적지로 출발키로되엿는데 경기도사회사업협회에서는 청량리(淸涼里)역에서 이주가족의 늙은이와 어린이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여 그들의 먼길을 축복할터이라한다

처에서 쇠창(?)대중(?)에 홍지며 도라다니든지로 피해를당한것은 동척(東拓)을비롯하야 신정(新町)유곽거리등십여개소나 되다고 한다

中年寡婦寢室에 侵入한 怪漢!

痴情인지? 盜賊인지?

치정인가? 도적인가? 십칠일오전한시쯤되여 부내 상왕십리정칠백사십일번지 유영희(柳英姬)(三)란 과부의집에 괴한이 침입하야 녀자혼자 자고잇는방에 들어가 희중전등을켜가지고 물색하는바람에 전기주인이 놀라깨여 고함을 지르는바람에 그냥도망질하고 마럿다 신고를바든 동대문서에서는 치정관계인지 도적인지조차 알수업서서범인수사에 큰곤란을 늣기고잇다

假停車場에 停車 遊覽客에서 비스

철도국에서는 오는 이십일부터 시월말일까지의 사이에 일요일과 축일(祝日) 제일(祭日)마다 관악산(冠岳山) 망월사(望月寺) 소요산(逍遙山)부근의 유람객을 위하야 안양(安養)과 가정거장과 망월사입구 가정거장과 소요산입구 가정거장에 일정한동안 정거하기로되엿다한다

無電臺下男兒屍

身元마침내判明

死因은解剖만苦待中

조간기보=삼일한강통(漢江通)무전대뒤에서 생긴종류가정의 소년과시체사건은 십삼일에 이르러 아래와가튼 사실이 판명되엿다 부내동래정(東萊町)사정목이백구십칠번지의 칠에사는 박련래(朴連來)(三)의 넷재아들 박병수(朴炳秀)(六)와 그의내종사촌형인리윤의(李潤儀)(三)가 지난십륙일아침에 시내를 구경하려간다고 집을나간후 동일오후열시까지 드러오지안하므로 서대문서에수사원을 제출하야 그수배가 용산서관내한강(漢江)통주재소에도 가잇섯는데 어제밤에 전기 리윤의(李潤儀)가 차저와서 제외사촌아우인 박병수(朴炳秀)가아니냐고 한다고 신고하엿스므로 곳 리윤의를 불러다 알렷다 서로 인지하는일방 병수(炳秀)의부친 박련래(朴連來)를 호출하야 전부를 무러보앗는데 죽은소년의 신원이 판명되엿나 문제의 리윤의는 개풍군림한면채련리(開豐郡臨漢面採蓮里)에사는 박련래(朴連來)의 누님되는 바

姦夫婦共謀로 本夫를打殺

最終審도無期役

남의안해와 불의의 관계를매진다음 그의본부를 죽이고 살인죄로 일이심에 무기징역판결을밧고 고등법원에 상고해온황해도곡산군 면미면장양리(谷山郡面美面長陽里) 박덕길(朴德吉)(三)에관한 살인피고사건 상고심공판은 십팔일 고등법원에서희두(宮館) 재판장주심、산택(山澤)검사관여미테 열리여검사로부터 상고기각 의견진술이잇슨후곳에정되엿는데 사건의내용은대개 다음과갓다 피고는 재작년이월께부터전기주소에서금을 캐는로동을하여오든중가튼일자리에서 일을하고잇는조치률(趙致律)의 안해송삼봉(宋參鳳)과 친하게되야 그해류월부터 불의의관계를매진후 두사람은 공모하고 조치률을죽인다음 가티살목적으로 그해팔월십칠일오후두시에 전기장양리여운동(如雲洞)냇가에서 사금을채취하나가 바우돌우에 안저쉬는조치률을 별안간때려 너머트리고 그의허리끈을 풀더목을매어죽인것으로 피고와 간부(姦婦)송삼봉은 해주(海州)지방법원과평양(平壤)복심법원에서 모두살인죄로 무기징역판결을 바덧든데 송삼봉은 그대로 복죄하고 피고만 불복상고해온것이다

今日의卒業式

淑明과向上

금십구일의 시내각중등학교졸업식은 오전열시부터 숙명녀고(淑明女高)와 향상녀자기예학교(向上女子技藝學校)등교에서거행하엿는데 졸업생과 우등생의상세는다음과갓다

◇淑明女高=卒業生 一一四名 優等生 五名 金豐姬 金子香 鄭然順 許承福

◇向上女子技藝學校 卒業生 研究科 十四名 本科九十四名 優等生 十名

(사진 상은숙명 하는향상녀교졸업식)

北中에서驅逐되는 二萬餘在留同胞

密輸入業者를理由로正業者까지도苦境

事態는惡化、救急이緊切

북중국(北中國)일대에 산재하야잇는이만의조선인은 최근중국정부로부터 할분루구축을당하야 실로사활문제에 빠저잇게되어 북중주재일본영사관의 전기총영사와 ... 가 십칠일오전중 총독부당국을 방문하고 그들의보호대책을 협의한후 외무성(外務省)과다시 협의하고 십칠일에 후 동경으로향하야 떠낫다 이제북중국재류동포의 구축문제가 악화한내용의대개를듯건대 그곳 이만인중에는 농업혹은상업등 업을 경영하고잇는사람도 잇스나 아편 인조견 모루히네 사향등을 밀수입하야 생계를잇는사람도 적지안은바 소잇슴으로 중국정부에서는 이 일부밀수입자들을 구실로하야가지고 구축의리유를삼는바 최근에는 밀수품휴사는 중국인에게는 사형에처하는 법률이 시설되엿슴으로도 재류조선인이 밀수입을한다는것이 자연 금지되여버렷는데 중국측에서는 구실로 구축하는동시에 ... 창부도 구축하는것이며 이만재류동포의 구축문제가 가라안지못할것으로 보인다 할뿐으로 현재 이만재류동포의 생활은 심히 곤궁하게되엿다

相川外事課長談

嚴重抗議할方針

保護策을確立한後

먼저現地에出張、實情을調査

북중재류동포구축문제가 악화하얏다는함은 별향과가튼거니와 이에대하야 총독부상천외사과장(相川外事課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북중에잇는 조선인의 일부에 서 밀수입을하야 생계를이어오는사람도 잇섯다 중국에서 일본내지인 또는 조선인에대하야 신체검사를못하게되어잇슴으로 밀수입하기가 매우편리하다 그러나 중국정부에서밀수품에 대하야는 중국인은 사형에처하는 법률이 시설되엿슴으로 중국인은 밀수입을 못하게되엿스나 조선인은 밀수입을 할수잇섯다 최근에 부상천외사과장(相川外事課長)은 오는 사월십삼일부터 개최되는 지사회의에 참석하야 외사과소관사무를 보고하고 끗내인후 십오일경에 북경、천진방면에 출장하야 구체적으로 현지정황을 조사하야 보호책을 확립하야 외무성에서도 이문제를중대시하야 적극적으로 그해결에 노력하게다고한다 현지실정을 조사하야가지고 될수잇스면 그들을 수용할 보호책을 세울작정이다 그들의 보호책을 세우는것은 보통이번에 내가가는것은 시찰이아니라 적더래도 성의를다하야가지고 진심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할결심이다 외무성(外務省)에서도 이문제를중대시하야 적극적으로 그해결에 노력하게다고한다 이것은 예산문제가 생기는고로 간단하게결정될문제가아니나 하여간 보호책을 확립하는동시에 중국에도 엄중히항의할터이다

初音町에火災

십칠일 오전한시쯤에 부내초음정(初音町)일백오번지 리응균(李應均)의집 련단 건조장에서 불이나서 「빠락」건물을 전소하엿다

九個月에死産 그대로暗葬

경기도 광주군경안면 경안리(廣州郡慶安面京安里)한삼학(韓三鶴)(三)의 안해 김원보(金元甫)(二)는 지난이월이십류일 오후에 린이를나서 죽인다음 암장한혐의로 방금광주경찰서에인치되여 취조를 밧는중인데 그는 작년류월에 검천석(金千石)과 지난십일월에 전남편으로 남편과 리혼한후 여러가지 혼인 신한수 삼개월이라는 남편이 남이 하여 데려가리 살어오든터로 그 결혼하야가 이십일전에 유물에갓나가 ... 제한후

市內各公普新入生 地域別配定完了

今日、廿七校長에게 志願書分給

今明間家庭에도通知

기설 신설 부내이십칠개공립보통학교입학지원자의 입학사정은 학교별배정은 경성부학무과에서 전부지역별로 정리배정을 완료하엿스므로 십팔일오후네시에 각보통학교장을 부청으로소집하야 그배정정리한 입학원서를 각기나누어주엇다 그리하야 각학교로부터는 그배정된 지역의 입학지원자에게 오는이십삼일에 사정(査定)을 바드러오라는 통지를 각기 발송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각 구역거주의 입학지원자를 각기 배정된 학교를 알리게 될터이다(자세한것은 본보 십구일 조간에 보도됨)

市內各校合格者

善隣商業(朝鮮人五十一名)

安昌國 崔宇君 金圭漢 李相大 金日龍 劉延禧 方樂榮 朴容燮 魯思鎬 李昌雨 申振敏 南基萬 金教成 金東錫 沈允南 辛昇來 崔永賛 李敏元 李鍾勳 梁嘉興 安吉軒 李文得 崔炫東 孫興求 曹圭鶴 鮮于注 安鍾森 朴□植 金永旭 朴商燮 姜奉文 朴大平 高鳳烈 姜起東 徐廷一 洪住天 申連福 韓柄求 具本謙 吳命根

仁川商業

高一善 金榮弼 劉廷鎬 金東根 孫奉乾 金基昇 黃良玉 金振模 李正來 崔鍾壯 金昌顯 李敏燮 金一春 柳魯珣 金演宰 金顯植 朴商試 李相圭 南澤祿 金炳甲 沈鍾澤 姜和景 金德男 洪鎭杓 李斗植 李起亨 申寶鉉 金永澤 成文模 金完求 李敏春 高榮範 李康弼 沈鍾燮 尹□模 池敏植 鄭鳳喆 柳炳元 洪珪應 李斗鎬 李鱗植 金大俊 張潤業 金國泰 許德九 安鍾益 金雲瑞 李源甲 金惠永 李熙相 金容勳 韓慶澤 張雲龍 劉永二 李鍾尚 尹象淳 諸東瑞 李奎相 李殷昇 金有族 李鎬稷

天氣豫報

槪況=七七二미리의高氣壓은 滿洲로부터 朝鮮으로퍼저 中國內陸及本州方面은 氣壓이낫고 千島에는 優勢한低氣壓이 잇다 南朝鮮地方은 日氣가조코 裏日本은 降雪이잇스나國西地方은晴 其他는曇、琉球諸島는 風雨가强하다

豫報=今夜와明日은 京畿道 全南가晴

昨日最高 二度三

同 最低 零下五度三

今朝最低 零下五度一

今日正午 三度四

格合祝

制服指定은

鍾路洋服店

(鍾路東一銀行南側)

カゼノコ ピリン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旭町

發賣元 東京市青山二丁目 天藝堂

小資本工業案內

東京 桃屋商店

男女淋疾 蔘茸五淋錠

軍手와帽子

大昌工業社

軍手의製造

豐國軍手京城營業所

アイスケーキ機 中津式 冷凍機

大陸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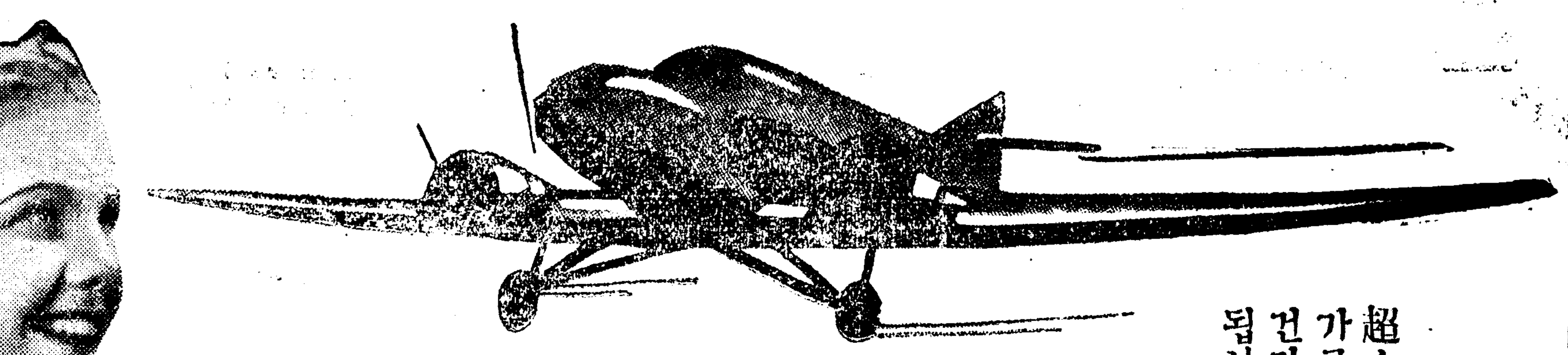
水玉産婦人科

虎溪養鷄場

保健報國

世界的名藥

慢性胃腸病速効



超스피ー드時代병은한시가급하오니곳약을쓰시와건강하고튼튼한몸이되십시오

鎭痛 消化 補胃

蘇生

체증속병엔겡오ー가제일이오

약을쓰시와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主治効能

겡오ー의효능

만성위장가다루(慢性胃腸加答兒)
위궤양(胃潰瘍)
위아도니ー(慢性胃弱)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위하수증(胃下垂症)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급성위장가다루(急性胃腸加答兒)
식용업는데(食慾缺乏)
소화불량(消化不良)
위확장(胃擴張)
기타위장병(其他胃腸病)

세계에서유명한췌라는약제도만히들고신발명한귀중한재료만만히든약이오

겡오ー

약을써보시고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물가가점점폭등하여가니지금곳안쓰시면약갑이멧배나오를니다가정상비약으로도꼭필요합니다

무병이 장자오신외우홀이라 몸이불편하면 활동보국이 태산갓흔들무엇하며 속이안좋으면 진수성찬이압헤놀비하야도무심하다 음식을먹은것이 잘소화가되여야 음식이맛도잇고먹은것이살로가게되나 몸이튼튼하고정신이좃코 한병이호러시고 무슨일이든지할수잇나 세상에병으로 고생하는분은 모다 처음에는 위장병이원인이되는것이다 위장이약하야속병이니 소화불량이니 체증이니적이니 가심아리니 헛배가부르니 냉배를앓는니 신물이 올나오느니 하야고생하시는분이 위산이나 소다나 약재료가 납버서 화리나만케하야 파는약갓흔것을써서 점점위장을약하게하고 중독이들고 다시도지고 약만떼면 도아푸고하야돈만허비하고 약을언제든지 떼일줄모르고 세상을비관하시는분은 신속히 겡오ー를쓰시면 아모리오래고 위중한 속병체증이라도 잘낫습니다

약갑
완고용(頑固用) 삼원
중증용(重症用) 이원
경증용(輕症用) 일원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좋심하면삼원분만제가좋습니다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신약백화양방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振替京城四九五〇番

약효를사실로증명하는이감사장을보시요절대자신을가지고권고합니다

◎만성위장가다루 (胃腸加答兒)
배가상아푸고 설사가나고 속이불편하고음식맛이업는분은 겡오ー를 쓰시오

◎위 약 (胃아도니ー)
음식이 잘 언치고 첫이괴이고 음식맛이업고발증세에 겡오ー를 쓰시오

◎변 비 (便秘性腸加答兒)
뒤가조하고 순하지안코 배가장불편하고 두통이나고 기운이업는 증세에 겡오ー한제로 잘낫습니다

◎위확장 (胃擴張)
음식을먹어도 헛헛승나고 배가부르고 가슴이아푸고 몸이마르고 설사가나고 음식을대하면 먹기싫고 발증세에겡오ー를쓰시오

◎위산과다증 (胃酸過多症)
음식이 내릴때가되면 가슴이아프고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쓰린증세에 겡오ー를 쓰시오

◎위괴양 (胃潰瘍)
몰납마서도 도로올나오고 가슴이 아푸고 아모것도 먹지못하고 파리한증세에 겡오ー를 쓰시요

◎위하수증 (胃下垂症)
헛배가부르고 밥이나리지안코 가슴이 갑갑하고소화가 안되는증세에 겡오ー를쓰시오

◎위장결해 (胃腸結核)
배가항상아푸고 몸이파리하고 구미가입고 설사가나고 뒤에피가나오는 증세에 겡오ー를쓰시요

◎식욕부진 (食慾缺乏)
음식맛이업고 기운니업고 소화가안되는분은 겡오ー를 쓰시면 살니찌고 음식이쑥쑥잘내리오

家庭

반갑잔흔 첫봄의선물 이알이가도진다
차게만하다가는도리어더치는것 응급으로치료하는법

어떠한 병이든지 철이바뀔때 제일만히 생기는데그중에도 만성(慢性)의 고질은 더욱히 그럿습니다. 이도 물론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만큼 자연히 철이바뀔때쯤 만히 도지고 생기게된답니다. 그런데 왜그때하필 치통이 만히 이러납니까? 첫재 겨울이나 가을에는 누구나 건강이 축지게 되는데 그결과는 대개 그당장보담 좀 지나서 나고 둘째 그병이세균으로서 되는것이라면 겨울이 지나서 날이차차 따뜻하야 지는데딸아 세균의 번식력이 느는것입니다. 보통 충치는 일년중 어느때나 마찬가지지요만은 충치가 기퍼 들어가 이뿌리까지 미친것이 찬물을 마시거나 하면 갑작이 아프기시작하는수도잇습니다. 또갓생긴 충치라고 하더라도 벌써 신경에까지 범하게 된것은 이틀동에 이르러 좀더 심해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아픈 것이 못 견디겟느니 하야도 이처럼 몹시 아픈 데는 업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이알이를 하게 되면 음식을 잘못먹는것은 물론이요 만사에 여념이 업서저서 볼수가 업시 됩니다. 될수잇는대로 얼는 의사에게 보여서 근본치료를 바더야 되겟지요만은 집안에서도 당장의 응급치료(應急治療)만은 알아 둘필요가 잇습니다. 실상 치통가튼것은 잘못 건드리다가 고만 덧드리어 의외의 고생을 더 하는 예도 드물지 안습니다.

첫재 초기의주의에 찬물이 들어가서 아픈것은 아직 충치가 심하지 안한것입니다. 그런것은 아프더라도 찬수건을 대지말아야합니다. 또 덥게해도 점점더 아픈수가 잇스니 그것은신경이 아직 살아잇는까닭입니다. 그런데는 뜨거운 물가튼것을 주의해서 마시지 안토록해야 합니다. 좌우간 어떠한경우에나 입안의 온도(溫度)를 변치 안케 하는것이 제일 조흡니다. 어린애들은 중소수(重曹水)를 숨에 죽이어 매주시는것도 무방합니다. 둘째 상당히 진행된 뒤의 주의 뜨거운물을 골라서 찬것보담도 더운것이 덜 아프면 그것이 신경이, 벌서 죽어 업서저서 상당히 심한 정도에 이른 까닭입니다. 그런 때는 안이 곪기어 잇는까닭에 차게 하는 것보담도 뜨듯하게 하여야 얼는 회복될것입니다.

이가 아프면 그저 차게 해야 되는줄 알지오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잠간은조곰 낫는듯하지만은 그다음이 더 아픕니다. 수술한뒤가 아니고는 시킬 필요가 업습니다. 더구나 서투른 솜씨의 어룽쉬짐은 어느정으로 위험까지하입니다.

양치질을하는것도 입안을 깨끗이 하는이외에 아모효력도업습니다. 오히려 입안의 온도를 자꾸 변화시키는때문으로 자조해서는 도리어 해롭습니다.

"봄타는데 초나물" 다ー까닭잇는말
초나물이가진약성과영양분 (上)

朝鮮藥學研究所 洪善杓

먼ー산에 아지랭이가끼며 압산을바라보면 따뜻한 태양볏에 아롱아롱하는 무슨물체가 중간에잇는듯한 현상을 발견하면 서원기가 튼튼한사람은 아롱거리는 그림자를 분명히 바라볼수잇지만은 원기가 부족한 소위봄탄다는 사람은 분명히 보이지도 아니하겟지만은 자연노곤한생각이 밟작하는동시에 사지백체가 모도힘이업시 느러지는것입니다 이러케 따뜻한볏헤 안젓다가 너무나 따뜻한 기운에피곤함을 이기지못하야 볏을 피하야 볏업는방안으로드러오면 이것 역시 원기가왕성한사람은 약간 방안이 잠간동안 침침하다가 다시방안을 살펴볼수잇지만은 봄타는사람은 방안을 드러서면 얼마간은 지척을 분간치못할만치 아모것도 보이지아니하야 점점매다가 멘몽안지내두에야 겨우 원상을 회복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면이 봄 탄다는것은주춘증(注春症)이라는것인데 봄이되면 사람에게따라 아조먹지못하는사람이잇서서 병든사람가티 되는일이 왕왕잇는것입니다. 봄이 된다면 왼ー겨우내 잠들자고잇든 초목들은 봄기운을타서 생기를띄어 싹이트기 시작하면서 봄 타는사람은더욱 더 먹지못하게되는것은 동양의서(醫書)가온데 사람의 비경(脾經)이 위경(胃經)이 약하야 진다는것인데 이것은 오행(五行)으로 목극토(木克土)로 초목들은 물론 목(木)이라하겟지만은 비(脾)는토(土)로된것이라 나무가 흙을이기고 나오다는의미하에 겨울동안 잠 자든나무들이 흙을뚜려 이기고(勝)나아오는 까닭으로사람의오장가온대에잇는비도 흙의 성질을가지고잇는까닭으로 비위가약하야지는고로 무어나오 잘소화시키지못하는까닭이라고합니다 그러나원기가 왕성하야 장위가 튼튼한사람은 혈액의순환이 원만히되는고로 비혈(脾血)이 왕성사이업는까닭으로 무어나 먹기만하면 잘ー소화가되는고로봄탄다는것을모르는것입니다

가정의 학

만성수은중독

問 이시상세 기혼여자인대십오세때에 우연히인후가 아퍼고통을번든중 어떤의사의말로써수은혼을 일곱번이나하얏스나 인후도낫지못하고 온전신이저리며 쑤시고 아퍼견딜수업기로 지금것 한약또는양약등을 복용하오나 조곰도효력이업시 점점심하야갑니다 인후에는 무슨약을하며 만성수은중독은 어찌하여야 낫겟습니까 ([illegible]女生)

答 오랜이나경과하엿스니한번진찰후 치료하심이 가할것갓습니다 치료법으로는우시몸의한 소도독우두가리의 내복등방법이엿스나 정도여하에 의하야일정치안습니다 ([illegible] 朴榮來)

이것도세게제일 미국의교통사고

금번의 미국[illegible]제일은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엿스므로 뉴ー욕거리에는 사람이 여간만히 나오지안햇습니다 이날은 어떠케 복잡하엿던지 종일자동차사고가 빈사히엇섯습니다.

이날하로사이에 이러난 교통위반이 륙천삼백건이라하니 이것은 미국이생겨난뒤에 처음잇는 일이엿습니다 무엇이던지 세계제일을 자랑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만은 조치못하얏던지 신문에는 조곰평판이조치못하게 쓰여잇섯습니다.

그날제일복잡하던곳은 베ー드포ー드거리와 라파이엣트 거리의 부룩크린교통재판소로서 재판소의문은 종일사람이 드나드러서 한번도 다치여보지못하얏습니다 그우에 더욱놀라운것은 하로가 겨우저무러서 재판소의 벌금수입계원이 장부를 정리해 보니 칠천불이라는 놀라운 금액이드러와잇섯습니다 칠천불이면 여기돈으로 이만사천원이넘게됩니다

우리차지

"큰일낫네"

꾸중드를일이
큰일입니다.
『옥순아 너 치마폭이
터젓구나 그것두 모르
고 다니니』
『애 금동아 말마라랑.
너는 대님한짝 엇다이
러먹엇니』

(글쓴사람 강수성)

今年度 市內各女高普入學試驗問題

同德女高普(2)

算術科其一

1 次ノ式ヲ計算セヨ(運算・答)
イ 9486+18−135×3
ロ 6×{(5.1−3)+7}

2 或人ガ山ヘ登ツタ。上リニハ每時2kmノ速サデ步キ 下リニハ上リヨリモ每時2.5km多ク步イタ。上リニ 6時間カカツタトスルト下リニハ何時間カカツタカ。(式・運算・答)

3 或人ガ遠足ヲシタ。出發後12km步イタガマダ全體ノ$\frac{4}{9}$殘ツテ居ル。全體ハ何程カ(式・運算・答)

4 甲ハ2圓15錢 乙ハ1圓43錢 持ツテ居ル。今此ノ 2人ガ同ジ金高ヲ持ツヤウニスルニハ甲ハ乙ニ幾ラヤラネバナラヌカ。(式・運算・答)

5 營業純益 10075圓ノ或商人ノ納メル營業收益稅ハ何程カ稅率ハ1000圓マデハ2.2%デ 之ヲ超エタ分ニツイテハ 2.6%デアル(式・運算・答)

算術科其一の二

1 次ノ式ヲ計算セヨ(運算・答)
イ $2\frac{3}{8}+\frac{5}{6}-1\frac{5}{12}$
ロ $(8\frac{1}{3}+0.75)\times\frac{4}{9}\div 8$

2 眞鍮ノ比重ハ 8.4デアルトスレバ長サガ1mデ切口ノ直徑ガ5cmノ眞鍮ノ圓イ棒ノ重サハ幾キログラムアルカ。1ccノ水ノ目方ハ1gデアル(式・運算・答)

3 60mヲ隔テテ 2本ノ電柱ガアル。此ノ2本ノ電柱ノ間ニ2.5m每ニ櫻ヲ植エルニハ幾本ノ櫻ガイルカ(式・運算・答)

4 甲乙 2人ノ持ツテ居ル金ハ合セテ12圓48錢デ 甲ノ分ハ乙ノ分ノ$1\frac{2}{5}$倍デアル。甲ノ所持金ハ幾ラカ(式・運算・答)

5 元金 850圓ニ對シ半年間ノ利子ガ20圓40錢デアルト年利率ハ何程カ(式・運算・答)

算術科其二の一

1 次ノ複比例式ヲ解ケ(運算・答)
$\left.\begin{matrix}3.5km : 4km\\ 6時 : 5時\\ 8圓 : 9圓\end{matrix}\right\} = 7日 : 日x$

2 次ノ式ヲ計算セヨ(運算・答) 小數 2位マデ求メ餘リノ數モ記セ 0.2151÷0.47

3 步合ガ13.2%デ步合高ガ66gデアルト元高ハ幾ラカ(式・運算・答)

4 或株券額面50圓ノモノヲ80圓デ買入レ年1割2分ノ配當ヲ受ケルト利廻リハ年何程カ(式・運算・答)

5 或人銀行カラ金750圓ヲ3月30日カラ8月31日マデ日步3錢デ借リタ。元利合計何程カ(式・運算・答)

6 12圓50錢デ買入レタ品ニ17圓50錢ノ定價ヲ附ケテ之ヲ定價ノ一割引デ賣ルト幾割ノ益ガアルカ損ガアルカ(式・運算・答)

算術科其二の二

1 次ノ式ヲ計算セヨ(運算・答) 0.659×7.51

2 次ノ式ヲ計算セヨ(運算・答) $1\frac{5}{9}+2\frac{1}{6}\times\frac{3}{7}$

3 或町ノ人口ハ一昨年ノ初ニ52000人デアツタガ 同年末ニ調ベタラ年初ノ人口ノ 2%ヲ增シ昨年末ニハ更ニ 前年末ノ 2.5%ヲ增シテ居タ昨年末ノ人口ハ幾人カ(式・運算・答)

4 電報料ハ15字マデハ30錢デ其ノ上ハ5字 又ハ其ノ端數ヲ增ス每ニ5錢ヲ增ス。37字ノ電報ヲ出スニハ幾ライルカ(式・運算・答)

5 正方形ノ面積ハ一邊ノ長サノ2乘ニ比例スル 甲乙二ツノ正方形ガアツテ其ノ一邊ノ比ガ5:6デ甲ノ面積ガ 100平方糎デアルト乙ノ面積ハ幾ラカ(式・運算・答)

6 林檎ガ94アル。之ヲ甲乙丙三人ニ分ケルニ甲ノ取分ト乙ノ取分ノ比ハ4:3デ 乙取分ト丙ノ取分ノ比ハ 5:4ニナルヤウニスルニハ各幾ツヅツ取レバヨイカ(式・運算・答)(二)

探偵小說 假想犯人 (30)

金來成 作 / 鄭玄雄 畫

意外의結末 (三)

그때 라용귀는 픽 하고 비우스면서

『당신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잇는지 나는 도모지 알수가업습니다. 그와가튼 방법으로 그와가튼 동기에서 해왕좌의 좌장 박영민을 죽엿다고 처음부터 나는 정직하게 자백하지를 안햇습니까. 그것을 입증부가사진이 어떠니 시계가 머저잇섯스니 어떠니 하면서 나에게생에대한 희망을 가지게한것이아닙니까.』

『옹! 확실히 너는 우리들보다는 지에가 한층더 압서섯다. 그러나 결국 너는 패부의길을 거려야 할것이다. 네가 베손으로 너의 무덤을 파고 잇섯다는말이다. 그 리유를 인제부터 설명해보마.』

백검사는 잠간동안 눈을 감엇다가 다음과가튼 길다란 설명을 시작하엿다.

『너는 유불란씨로부터 그가창작한「가상범인」이라는 연극에출연하야 부탁을 바덧슬때 너는 그의 상상력이 얼마나 정확하엿는지를 아랏슬것이며 따라서 너의 놀라움은 진실로 컷슬것이다. 유불란씨는라는불떵어리와 가튼 정열을 가슴에품고 너무도 로골적으로네게다 싸움을거럿다. 그러나 너역시 유불란씨에 지지안흘만큼 대담한 사나이엿섯다. 그리하야 드디여 너는 무대에 서기를승락하엿든것이다. 연극의 순서를 따라서 너는 제일탄으로 박영민을 쏘앗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영민으로 분장한 배우를 쏘앗다. 거기까지는 괜찬타. 거기까지는 괜찬으나 그러나 너는 거기서 또하지안흔 실패를 하엿든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너는 의성술(擬聲術)을 가지고 잇느니 만큼 피해자 박영민으로분장한 홍이란배우의 목소리를 숭내냇스면 그만이엿슬것인데 그러나 너는 너무도 충실한 예술가엿다. 연극을 하고잇는 동안 너는 너자신도 저항할수업는 예술적 핍진성(逼眞性)을 전신에 느끼엿든것이다. 게다가 또한편 폭로적 흥미까지 느낀너는, 되는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서연극인지 사실인지를 분별할수업슬만큼 너의 정신을 열중하엿다. 살인의 형의라든가 또한 무서운 형벌이라든가 그러한 속박에서 버서난 너는연극에 너무나 충실하엿다. 그리하야 너도 모르게 너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그것은 좌장그사람의 음성이엿스며 몽란그사람의 목소리엿다. 이러한나의 의견을 너는 진심으로 부인할용기가 잇는가?』

그리고 백검사는 대답을 재촉하는 듯이 라용귀를 바라보앗다.

라용귀는 한참동안 잠잣고잇드니 백검사의 설명을 별달리 부인할 필요가 업다는듯이

『그럿습니다. 사실 나는 맨처음부터 자백할려고는 생각하지 안햇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이결론과 어떠한 관계가 잇다는말이요.』

『물론 중대한 관계가잇다. 그날밤 무대에서 돌아온 너는자기의 실책을 얼마나 후회하엿든가. 그러나, 당국이 너를체포할 아모 증거도 가지지못하엿다는 사실을 너는 잘알고잇섯다. 그러나 하로이틀 연극을계속하는 가운데 자자한 사회의 비난과 무서운 불란씨의 눈동자가 점점 두려워젓다. 드디여 너는 교묘한「트릭」을 남겨노코 거즛자백이란 연극을 하엿든것이다.』

『뭐, 연극이라고요?』

라용귀의 얼굴이 새파라케 변하엿다.

놀라움을 마지안는 라용귀를 한번 빗겨본후, 백검사는 피존을한개 부처물고 말을이엇다.

『그다지 놀라지안허도 괜찬어. 네가 한거즛자백이란 한마의연극에는 또한가지 중대한원인이 잇섯든것이다. 사랑의 표현기공(表現技巧)이 바로그것이다. 자기의 일신을 희생하는 사랑의표현―그것으로 말미아마 유불란씨에게 훌러가고잇든 몽란의 사랑을 네게로 돌려노코저 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실패되고야 말엇다.』

『어째 그럿습니까? 그것은모순된 이론입니다. 내가 자백을 하여서 몽란이가 무죄방면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몽란에게는 더할수업는 행복이요 기쁨이아니겟습니까.』

『옹, 누구든지 그러케 생각하기가 쉽다. 자기에게 누명을씨우려하든 너를 몽란은 좋은마음것 미워할레다. 그러나 몽란이가 너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네게는 더욱 조타.』

執務家의殆半은 胃弱이나 胃下垂
一、原因은 食後의 激動으로
一、食後直時出勤은胃의虐待

『벌서×時가 되엿세요……또는지 시면어떠케하실라고』

『×時? 그럼 느젓게? 멀그리 꾸물꾸물하고잇서』

『당신두물꾸물하지 내가꾸물꾸물해요 앗가부터몃번을 깨드려도……에이속상해……』

『무얼어째? 건방지게……』

執務家의家庭에서흔히볼수잇는 아츰風景의하나이다 일어나서는 洗手도대강하고 아츰은 急하게 퍼먹느라고채목에넘어가지도안흔 채가방을들고出勤을한다 點心때는 아츰을急히먹고가느라고만히도못 먹어空腹인채그대로참고

直時事務를보든지

또는運動에熱中한다 이러한習慣은 健康上에어떠한影響을끼처주는냐 하면第一日胃가큰被害를밧는다 執務家에게胃病이만흔것은이런까닭으로그中에도胃弱을 胃아토니ー나、胃下垂에빠지는사람이만히잇서그數는全體의六割에達하고잇다

大體胃는 食物이드러가면胃液을分泌하야 食物을消化를잘식히며 一種의胃腸運動을니르켜서 개이게하고다음에는腸으로보내는대、그消化를식히는대에 要하는時間은 大體로 定한時間이잇스니、食後三四十分이때 胃液이 盛히分泌되여消化가 가장

活潑하게되는때

임으로、可及的安靜을할 必要가잇다。

그것은 數多한執務家처럼 食後即時身體를 甚하게쓰면은 胃에要하는血液이、身體의各部分에 分泌함으로、胃는消化를잘식히지못할뿐아니라。食物이꽉차잇는胃袋는 身體의激動으로 축처지고 흔들려 結局은胃筋肉이、組織細胞ー自體에서부터 衰弱하게되고 만다。

胃弱이라고하는것은、이러한胃筋이衰弱하고、食物의消化가不充分하게되여、腸으로보내는作用도衰弱하야진病으로、食後胃가압흠을알게된다。

食慾은 나지만 마음껏먹을수업고 胃部에늘이 당긴것가티 소리가나고、噯氣가나는것이主容體이다

또胃下垂는 胃筋이緊張力을잃고 ゴム風船모양으로 축처지는 病으로、食慾이 不絶히變化하고 非常히亢進하는가하면 食慾이衰하야가슴아리나 嘔吐를하고 貧血이되여 結核病과가티 衰弱해지든지하는것이다

그런대이러한것을 治療하는法은 從來에는食物을적게시리[illegible]로단회서 營養을取하야서 胃筋肉의衰弱이나 弛緩을 增大식히지안토록하는程度이엿고、積極的으로胃筋肉의 異常ㅡ自體를 恢復식히는原法을 바랄수업섯드니最近에 이原因治療라고할수잇는퍽有益한 方法이發見되엿다

그것은 헤ー쎄라는 微生物을活性그대로 製藥한『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는것이니 이藥에는人體胃腸의 組織細胞에直接活力을주어서 그機能을活潑하게하는酵素를豐富하게 包含하고잇다

胃弱이나胃下垂의病原은모두다 胃筋肉의衰弱弛緩에 잇슴으로其筋肉과組織하고잇는細胞의機能까지健全하게恢復이되면은 病狀도自然히消散될것이니『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야 여러가지胃腸病이漸漸恢復되는것도 效果가잇슴은當然하다고하겟다

知識勞働者에게勸하고십흔 快眠、快食、快便의秘訣
能率이增進하는頭腦明晰三方法

날마다 頭腦를 쓰는사람이 自己의 事務를척척整理하고 能率을百%나 發揮할수잇게하려면어떠케하는것이 조흘가ー그것은무엇보다도 體의健全과 頭腦의明快가 基礎가되는것이니 榮養을 充實히하고 適度한休養을하야 心身으로부터 腦神經의 强壯化와 疲勞를 恢復식히는데 努力함이 第一이다

元來腦의作用은 燐、레치친等의特殊成分이 分解된것이고 또執務中에 休養時에 倍以上이나 구리고ー겐이라하는 榮養素가消費되는고로 頭腦를쓰는사람은恒常多種의 食物을만히먹을수잇게食慾을增進식히고이러한榮養素를充分히攝取할必要가잇다 또頭腦가疲勞한것을 곳치는대는 規則的便通과 安眠을 할수잇도록해야한다 이것과前記한食養法을併合하야 健康上의 三大要素로하얏다

그런대우수운것은 平生精神的執務를하는대는 頭腦의明快를必要로하는사람은 全혀 反對로 食慾不振이나便秘、不眠等으로苦悶을하며記憶力이나執務能率이低下됨을歎息하는사람이만타。

反對

事實이러한 障碍가 頭腦의活動에 조치못한 影響을밋치게하는것은 想像以上이다、于先食慾不振에對해서는 榮養이낫분兒童의多數는 學業成績도퍽떠러진다는事實을보면 잘알수잇슬것이다、다음에、便秘가되면 腸內에毒素가發生하야 이것이血液에 混同하야서 全身의細胞를이害함으로頭痛이나 倦怠와가튼 여러가지全身障碍를닐어 頭腦가鈍해진다

不眠

이얼마나 낫분가는 睡眠不足한다음 날머리가 띵하고흐미한것으로알수잇스니、單只腦만이 아니고、全身의 健康에는 非常한 關係가잇스며、고양이나 개를 몃칠잠을못자게하면 結局은죽고만다

이와가티、頭腦를쓰는職業人은恒常右의快食、快眠、快便의三要素를 잘調和식히도록 努力하지안으면안되며、迅速한養生法은執務時間을 空費하고、또經濟上의負擔도 過多한感이잇슴으로、가장 經濟的이고簡單한方法은 一般人이希望하는焦點일가한다。

精力

요사이 學生間에도 精力을 補助하는元素로헤ー『藥劑錠劑わかもと』가 만히 使用되고 잇는대 이것도前記한 三大要素를 이룰수잇슴을안까닭이다

이『錠劑わかもと』에는 腦神經의 營養成分인 燐、레치친은勿論、비타민B、全身細胞의 機能을昂進시켜서 食慾을增進하고、便通을整調하는等 作用이잇는酵素가 含有되엿슴으로 이러한作用은頭腦를 明快하게하는대 非常한效果를 나타냄은勿論 胃腸、結核等의急性、慢性諸病에도 效果를나타낸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에서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八十三日分五圓의 하로 멋푼에不過한 廉價로 發賣하고잇는대近者이整價를利用하야效果疑心할類似品을 파려는藥店이잇스니 注意하시오。

療養實話 胃腸이낫버盜汗이난다

北海道 石橋秋夫

나는小學校時代부터 運動을 조화하야 特히 마라손은特例히一等이엿다 小學校를 맛치게되때부터 胃腸을알어 여름에는더워서못견듸겟고、食慾이 늘지를안어 根氣는줄고 또한 工夫도할수업게되엿다。그러나 根本튼튼하엿든나임으로 別로히마음에도 두지안코조곰無理로 工夫를하엿드니어질증이생기고 胃腸이 더낫버저 밤에는 땀을흘리게되엿다

(中略) 親舊에게서『錠劑わかもと』가 퍽조타는말을듯고 열는사다가 먹엇든바(中略)全身에힘이생기게되고 氣分도조와저서 여기에힘을어더 服用을 繼續하고잇섯든바 食慾이늘고 盜汗도 안이나게되엿다。지금은某商店에서 每日熱心으로일을보고잇스며 小生은 今年十八歲이며 體重은 十六貫七百匁身長五尺三寸이며 이만하면 [illegible]軍人이될수잇다고父母들도 기뻐하고잇다。

專賣特許
二重作用の石鹼
살결의바탕부터 滑澤하게하야 蘇生시키는 獨特한整肌作用
거품이잘일고 때를 금방씨서내는 優秀한淸拂作用

姉妹製品으로서 가장實用的인
資生堂 銀座石鹼
東京·銀座 資生堂

學藝

鬱結의文學
三月創作의讀後感 (3)
白鐵

本來에잇서서 이作品의 出發은滿洲의 廣漠한 벌판을 호로馬車로 달리는 꿈의現實을 그리는데서부터 出發햇거니와 李氏의 文學精神으로보면 이作品의 全體가 그런空想의꿈 世界를 호로馬車로 달리는心情의 表現일밧게업나 나는李氏는 作家로서의 日常生活에 어찌 恒常 이滿洲벌판을 걸으不幸과 傷處를안고 달려볼날을 鄕愁的으로 憧憬하는꿈을안고 잇는哀愁的인 女人으로본다

그憧憬이 이作品을 通하야 空想的 滿洲벌판에 現實되엿스며 作品의 現實에서 作家가 到達한 部落은『옥수수와 감자가 산템이가티 싸여잇고 조이삭이 허리를 두르고도남을만치 길은』胡人의部落이다 『이부락엔 다대수의호인과 약간의 우리동포들이 살고잇고 그가운데 어디서 흘러왓는지 모르는 두어가족의 白系露人이 잇다』고하는 그곳은 얼마나 로맨틱한 꿈의 部落일까? 그部落의村家中에서 女主人公은 白系露人의 한집을 擇하야 留宿을한다。『스토-부우에 사모발이끌는다、마주편벽에 어떤제정시대 교장의초상화가 거미줄속에 굼기가끼여 매달려잇다』는 그白系露人家의風景은 얼마나 그中世紀的空想에 차잇는『고딕』精神의架空世界리요 또한 나종場面의『이땅은 마적이 잇서서 조코 되지가 죽은아이시체를 물고 뜯어먹는다는 이야기 가잇서서 조코 죽음가튼 고독이잇서서조타』는 奇怪하고 大膽한 浪漫的인생각은 今日의어느 作家도 따를境地가아니다

그런 로맨틱한꿈을 그리는純情에比하면 다리切斷場面을 그리는 散文精神은 이作家에게 一毛의價値도업다。

그空想의場面에서 追憶의結婚生活場面으로 도라진때에도李氏에게는 다만情熱의 半島와 空想의 大陸世界뿐이오 그두世界를連絡하는것이 鐵橋든木橋든 도대체 問題가아니엇다 그러기에 空想의場面을 따러는 한가운데서 그場面을 急殺이 中斷하고『나는 어서내의무인 긴-이야기를 쓰기로하자』참 轉換하는것도 小說的手法으로는 너무 單純하고 稚拙하다 作家의 第二의 情熱이 아름답게 展開되는곳은亦是 그過去에 對한 追憶의場面인것은 勿論이다 그『어리망대와가리유괘』한 結婚生活의 場面을 作者는眞으로幸福되게그렷나

그中에서도- 나는 이엄마가된다는 새로운 사실云云 - 以下의 場面은 女性이아니고 느낄수업는 純眞한感情이 그대로表現되엿다 다리切斷뒤에 女主人公의 性格이 히스테릭컬하게되엿는 心理의變態를 追求하는것도 女性作家다운率直한 心理描寫의場面이엇다 여기서 今日은 心理學的인 細密한 心理分析의 文學이 流行 하는 世上이다 그것에 比하면李善熙氏의 心理描寫는 童話를 朗吟한뒤의 餘韻에가까운 感傷的인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作家로서의李善熙氏의 恥辱도 아니오 또한 現代少說의 恥辱도 아니다 科學的心理文學이라는 世俗的인常識에 물드리지안코 自己의 純情을 漂渺하게 써가는 童話的인 文學에 도리어 커다란 東洋文學의 大道를본다

북·레뷰

人蔘과밥과阿片
李無影氏創作集"醉香"을읽고 (上)
玄民

人蔘은 補元氣하는靈藥이라 起死回生이라도하는 特効가잇나。阿片은 現實을 忘却케하는 秘藥이라 能히사람을 恍惚에 陶醉케하는힘을 가젓다。밥은 靈藥도 秘藥도 아니오 누구나 每日 特別한期待를·가짐이업시 가장 平凡하게먹는바이로되 도리켜생각하면 人蔘이나 阿片은 업서도 살수잇고 必要한境遇도 局限되여잇지만 밥은 업시는살수업는것이라 그人生에對한 必要의程度는 그平凡함에 反比例한다할것이다。

이말은 文學作品의 性質을생각할때에 또한 흥롭은 譬喩도 通用될것으로 생각한다。萬一그러라하면『醉香』의作者 李無影氏는『밥의文學』의 作者요 實로잘을 낫는 農夫에 比해질것이아닐까 생각한다。

氏의作品은 그의사람됨이 그러하듯이 恒常 奇로써 남의注意를 끌라하지아니하며 特效로써 남의病을 고치랴하지아니하며 妖術로써 남의耳目을 眩惑케하라하지아니한다。氏는 社會의正義를 누구만못지안케 느끼고잇스되 그로써 누구를 이끄러가랴하지안코 다만 그自身日常人의 한사람으로서 이를느끼고 잇슬뿐이다。氏는 謙遜한그의눈에 비치는 社會的 正義를 形象化함에 잇서서도 누구만못지안케 그藝術的 琢磨에 苦心하고 잇스되 그苦心을 看板삼어 그의 作品을 糊塗하랴는일이업다。그는 銳敏한 感情과細心한 注意로 人情의 表裏를남김업시 觀察하고 잇스되 일속으로보나 우리의 作家 李無影은 病을 곳치는 醫師도 아니오 사람을 眩惑케하는 魔術師도 아니오 우리에게 잇서서 가장 重要한 밥을 供給하는 勤勉質朴한 農夫인것이다。그러나 이農夫는 어떠케하면 가장 榮養잇는 밥을 供給할수잇는가를 發見키 爲해 끈힘업는 피와 땀의 努力을 남몰래 하고잇는 農夫다。

지금까지 李無影氏의 作家로서의 本質을 論하는모든사람이 或은그를 人道主義者라하고 或은 그를 스타일리스트라하야그들의 第一합이어엇슴은 實로 이러한 社會의 그외作風으로부터 오는 結果이엇는것으로생각된다。事實 그의作品을 對하면 때로는 人道主義者의 風貌도업는것이아니다。그러나이 人道主義者는『간스에』가되 톨스토이가 아니라 時代에부대기는 人道主義者다。그를혹은 스타일리스트라함도그의 文章에 苦心하는一面을 마처내지 못한바아니다。그러나 이스타일리스트는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思想의 擁護者가 되어가젓다。時代의苦悶을 時代와함께 呼吸하는人道主義者──그는 벌서 人道主義者가아닐것이며 思想의擁護者가준 스타일리스트─그는 벌서 스타일리스트가아닐것이다。

氏의作品을一貫하는精神은 그의모든良心으로 社會的罪惡을批判하라는데잇다。萬一氏가 처음부터 左翼作家로서 出發하엿드면 그는지금까지發表한그作品으로써 넉넉히 左翼作家로 通用하엿슬것이다。그러나 그는 나는左翼이요하는 렛텔을부치고나서지안햇다。렛텔을부치지는안햇지만 그의環境 그의社會的存在가비저낸 그의良心은 저절로히 現代의모든社會的矛盾으로向하지아니치못햇든것이다。이것이 氏의意識的努力이엇든 또는無意識的方向이엇든 그것은 나도몰은다。또그의良心이 果然嚴密한分析에 堪當할수잇는지 그것도保證할수업다。그러나 氏가 良心의 作家라는것 그의意識無意識如何를不問하고 그의良心은 社會的罪惡의 剔出로 向하엿다는것 그리고또 그가이러한 그의正義感을 吐露키爲해 어느스타일리스트에게도 지지안는 藝術的琢磨를 아끼지안햇다는것─이것만은 우리가 確言할수잇는바이다。

이번 創作集『醉香』은 이러한 그의風貌를 가장如實히 우리에게말해주는것이다。『나는보아잘안다』『醉香』『乳母』『早春』『山神을흘니는사람들』의 다섯篇은 이런意味에서 充分히 우리가 愛讀吟味할作品들이다。

『나는보아잘안다』 이것은『일의犧牲이된어떤男子가 마술케를他界으로부터 이世上에남겨노코온 그의妻에게보내는 獨白體의小說이다。男便을어인 젊은未亡人은 어린子息을안고 生活苦에허덕인다。그곳에나타난것은 죽은男便의 親友엿다。그親友가未亡人을도아주는데는 처음부터 어떤뜻이잇섯는지도몰은다。그러나 그의男便은──이것은卽作者自身의化身일것이다──果務한 小市民的狹猜로이것을보는代身 따듯한理解도 도리어感謝의微笑를띄운다。그러나 그들의接觸이 繼續되고 密接해저가는동안에어느듯 그들로서는 넘어서는안될限界를넘고만다。그러나 그러케되어도그의男便은──作者는 一片의憎惡로써 그들을 唾罵하지는 아니한다。勿論 그는 모든角度로부터 不貞한 男女의 行動을 批判한다。그러나 그곳에는 티끌만한 私心도업다。萬一 그들의사랑이 邪戀이니엇든들 作者는 도리어 欣然히이것을 祝福하엿스리라。그러나그들의邪戀은 社會的腐敗의한標本에 지나지안햇다。그래 여기서 作者는 將來 일군이될 그의아들을 이罪惡으로부터 隔離시킬것을 要求하엿다。

二梨：園：雜：談二

演劇無題 (中)
柳致眞

2、戲曲

自作自演出이란 퍽 어려운것이다。自己作品을 自己가 演出한다는것! 선뜻 생각해보면그래야만 조흔演出──더 기피잇는演出──이 생길것갓기도 하다。그러나 그實은 그와 反對인것이 걱정이다。

나는 내作品의 몃篇을 내가演出해보앗다。나의『버드나무선洞里의風景』『祭祀』『姊妹』『豐年記』그리고 脚色物로서는『春香傳』等이 그것이다。

그러나 벌서 四年前에『버드나무선洞里의風景』을 演出할때 나는 벌서 自作自演出의 悲哀를 느꼇다。그러나 그後에『祭祀』를 演出하고『姊妹』를演出하고『春香傳』을 演出하엿다。最近에『豐年記』를 演出하엿다。自作自演出만은 避하려하면서도 事勢不得已 이러케 떠마튼것이다。

自己作品을 演出해보니까 그중무서운것이 演出의統一性이다。제얼굴을 제가 못본다는。셈으로 自己作品을 自己가 볼둔이 업다。물론이업다는말은 即 客觀的立場을 取하기가 어렵단말이다。

아모리 내가 내作品에對해서 冷靜한態度를 取한다하려래도 거기에는 벌서 그作品을 쓸려고하던 素材때의 興奮과 그作品을 쓰는過程의興奮을 除外하고 冷靜할수는업는것이다。

누구나 作品을 쓸려고 素材를 모을때에 그登場人物이가지는 性格에 感激하거나 同情하는때가 업지 안흘것이다。그러나 作品으로서는 그人物이 그러케 感激的으로 나타날必要가 업는때라도 萬一그作品을 演出할때면 그人物의素材때의 幻影이 머리에남어서 强要히 感激的으로 그人物을 舞臺에다가再現시켜볼려고 努力하는것이다。

그러나 그努力은 結局 쓸데업는때가 만코 때로는 全體의統一을 깨트리고 그人物로하여금 그作品의調和에서 동떠려지게하는때가 흔히 잇는것이다。

나는 以上과가튼例를『버드나무선洞里의風景』의『할머니』란人物에서 經驗하엿고『祭祀』의『어머니』란人物에서 經驗하엿다 即 그『할머니』와 『어머니』는 人物에내가넘무 사로잡혓기때문에 그作品의演出에잇서서 作品自體의正常한『템포』를 이즌것이다。말하자면 作品의템포에서 그人物이脫線하고、그人物이脫線햇기때문에 演出은 全體의統一을 바로세울수 업는것이다。

더구나 從來의 나의演出方式은 演技者로하여금 한役을 理解하게하는同時에 演出者인나自身도 演技者와가티 그役의性格에 突入하야 演技者의손을 이끌고 차츰차츰 그性格의具象化에 到達하는것이다。(이것은 初步演技者에對한 나의 試驗이엿섯는데、이때문에 어떤사람은柳致眞은 演技者의領域에 발을犯함이 甚하다는등 어떤사람은柳致眞은演技者를 制作한다는등 여러가지 非難이만흔모양이다。그러나 여기對해서는 나도나로서一個意見、업는바아니나 誹謗은此後에 미루고) 이때문에 萬一演出者인내가 넘무 그性格에사로잡히면 演技者도 나와가티脫線하기가 더쉬운것이다。

以上은 한人物에對한 이야기지마는 한場面에 對해서도 同一한 實例를 들수잇다。

누구나 作品을 쓸때에 어떤情景에 醉하는때가 업지안흘것이다。나도 戲曲을 쓸때에 그럼때가 흔이잇다。어떤人物과 人物의對話에 醉하는때도잇고 어떠한 대문(場面)의 雰圍氣에醉하는때도잇다。어떤때에는 그한대문을推敲하노라고 不過二三枚의原稿紙를가지고 數週日間머리를 썩이는때도잇고 어떤때는適切하고 妙한想을 別努力업시엇는때도잇다。

이와가튼 作品制作上의 가지가지의 心理的苦衷이 演出에反映되는것이다。即 自己가 쓸적에 苦心한 때문은 自然히 演出에도『コル』(凝)해지고、自己가 制作時에 醉한때문은 演出時에도 그醉한氣分을 넘겨고 無理를한다。때때로는 自己가 別로히 努力업시 어든想은、그想이 戲曲全體에잇서서 實로 重大한 포인트를 占하는데도不拘하고 그저無心이 지내가는수가 만타。

이와가튼 여러가지點이 自己作品은 客觀的으로 統一시킬수업게 만드는것이다。

이번『豐年記』에잇서서『유자나무시집달』이란 人物은 쓸때에 혹은 쓰기前에 내가 만흔눈물을 흘린人物이다。그리고『尹主事』란人物은 아모努力업시 어든人物이다。

그러나 作品上으로 보면『유자나무시집달』은 全體의 약념이오『尹主事』는 全體의 기둥이다。

나는『유자나무시집달』을 無視하려고 애섯나。 그리고『尹主事』를 내세울려고苦心하엿다。

그러나 不安하다。

醫師는 自己의病을 진찰은하여도 보지는못한다고 말이잇다 醫師가 自己病을 못보는 不安은 自己作品을 自己가 演出못하는 不安과 同一하지안흘까?

學生作品
景巖山紀行 (上)
沙里院高女　白桂順

넓으나 넓은 들판에 허리를 펴지못하고 쭈구린듯 꾸부린듯 한무데이 집이라形容하는헌데딱지가티 慘酷한 群像이秩序업시 버려저잇는 조그만都城 이것이 沙里院의面貌나 내人生의 放浪길에 오늘밤꿈을매즐旅舍의印象이다。

거기에는 들러싼 群峰의 慈愛로운 抱擁이업거니 저-地平線넘어로부터 몰키고 덧겹어서 쏘살가티 달려오는 하느바람의 跋扈를 그누가 막어주며 거리의 목을 축여주는 한줄기 淸流가업거니 클클하고 타오르는 都城의內臟속달음을 누구가慰撫하랴。天地를가리운 砂塵의 무리가 예서도제서도 회호리바람을타고 跳梁하고 腐敗한 진창물과 냄새나는 티끌들이 거리마다 집마다 氣分나쁜 集結로 現代人의 焦燥한마음을 부쩌도아놋는나。山이업고 물이업고 두던도 구멍진곳도업시무연-한 曠野에헌데딱지가튼 一群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沙里院은 이기티 쓸쓸하나。荒凉하고 疲弊한 風景이 그住民들의 情緖를 어떠케 成長시키고 꾸부려 놋는지모른나。그리고 오늘의 沙里院이 內包하는 가지가지 아름답지못한 血脈과 이 風景과 어떠한 連鎖的關係가 잇는지도 모른나。그러나 沙里院은 憂鬱하다 憂鬱한 都市의 憂鬱한 市民들은 山水를 그리워하고 또 山水를貴해하고 사랑한나。邑의 東北에 遠山가티 주저안즌 海拔五百尺의 조그만 봉오리하나 모래바레아이들손으로 싸여진 모래山과도가티 크지안코 妙하면서도 어대인지 調和를 缺한듯하야 山으로는八朔童이 畸形兒 景巖山의存在가 얼마나 市民들의 마음에 安慰를주고 荒凉한 自然을 辯明하고잇는고。沙里院에 잇서서 景巖山의 存在는 無力狹女의 사랑밧는 身分요 慰勞의 對象이다。사람들은 이山의 周圍를들러둘러가면서 그急한山의 傾斜地에 自動車路를 달리엿고 峰우에 돌식이나 亭子를짓고 물터를 만들고 鐵棒場을 꾸미고 電燈을 裝飾하고 심시어 한그루나무 한포기풀꼿까지 다칠세라 꺽일세라위해하고 貴해한나 天眞한 學童들이 그리운自然의 품을차저 둘식셋식 지저귀며 모이는곳도 景巖山이요 멀리서 온 손들 爲하야自己의터전沙里院의鳥瞰圖를보이고저애기업은 안악네들이 가쁘게 기어오르는곳도 粉바른 송장과 酒氣품은 肉塊가 까소린냄새를山林間에 撒布하면서自動車를 모라내는곳도 예밧게업나

峰우에서 中學生의 一群이소래를 合하야 우렁찬 멜로듸-를 虛空의 저쪽으로 호더보내느냐하면 松林 그윽한곳에서玉을 구을리는듯 朗朗한 音聲으로 詩를 읊소리는 高女의 制服이보이며 長灯들는 老人네江山은 依舊한데 變임남은 世事를追憶하듯 地平의 一角을 悠然히 凝視하는바로 그여펜 포기포기 잔솔밧 푸른입에 끗이핀듯 젊은동무 두서너시 氣焰을 배아틀도 귀여워라。

東南面의 잔듸밧 밋밋한 二三子峰엔 松 樺 櫟等 雜木林이 울타리를 꾸며노코 봄에는 안즌뱅이 여름에는 벌나리 가을철에 들菊花 철마츤 풀꼿들이 다투어서 피는곳 그中에도 유난한 버레우는 가을밤에白雪가튼 薄花가 꿈과가티 나부낀때 雜木林 가지끄테 매어달린 銀月의 맑고도 慘憺함을무엇이라 形容할까。

이草園은 즐기여 閑寂한 家族들의 休息處를 自擔하야 언제나 두서너패의 아름다운場面을 우리들께 보여준나。

그러나 참된 景巖山의 보람은 西北面까까세운 層岩絶壁에 잇스리라。

하늘을 찌르려고 虛空에 욹랏는가하면 뭉게뭉게 怪岩이안젓다 이러낫다 가로 세로 춤을추고 너븨넓은 絶壁面 奇異한 바위틈에 봉진달내 가울丹楓 한포기 두어가지 風流마춰 點을치고 도닷는가 꼬잣는가고불고불老松의 발을붓칠 위래롭다。

이른아침 絶壁의上上峰 岩塊의 틈에꿀어 가슴지며 祈禱하는 여호아의 아들들의 거룩한꿈 깨칠세라 발소래도 조심스레 바위를 붓삽고서 아래를굽어보면 아득한 중더쯤 한줄기안개로 허리띄를 매인곳이 무에 놀랏는가 비달기 지치소래 요란하게 떠올랏나 자지젓나안개속에 出沒하니 말뜬곳는 仙境을 예와서보는듯。

▲健康朝鮮 第一輯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七一 健康朝鮮社 振替京城一六八一七番 定價一部五錢

▲更生 三月號 發行所 廣島縣京崎町日本赤十字社廣島支部京崎療養所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一番 定價十五錢

▲神學世界 第二十二卷第一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一一 神學世界編輯部 振替京城四六四〇番 定價二十五錢

▲ローマ字 三月號 發行所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丁目十二番地ローマ字ひろめ會振替東京六一一番 定價一部二十錢

▲正音 第十八號 發行所京城府仁寺町一五二 朝鮮語學研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定價一部十錢

今年度 市內各中等學校入學試驗問題 ❶
(第二高普)

國語科(甲)(乙)第一日分
(甲時間八十分)(乙時間六十分)
(其一)

一、次の文中平假名のあるところを漢字で括弧內に書入れなさい

一國文化ノていど(　)ハ其ノ國民ガ國法ヲまも(　)ルせいしん(　)ノこうはく(　)ニヨツテはか(　)ルコトガでき(　)ルトイハレテヰル。我々ハ常ニ國法ニシタガツテ幸福ナ生活ヲいとな(　)ミ、アハセテ國ノ品位ヲ高メルコトニ努メナケレバナラヌ。

大阪に出水あり。死傷スコブ(　)る多く、家を流しサン(　)をウシナ(　)ひて、路頭にマヨ(　)ふ者カズ(　)を知らず。

讀眼此のジョウ(　)をモクゲキ(　)してカナ(　)しみにたへず。

國語科(甲) 第一日分
(其二)

二、綴方
左の文題で文を綴りなさい。
『紀元節』

國語科(甲) 第二日分
(時間六十分)(其一)

一、次の文を讀んで、後の(1)から(6)までの問に答へなさい。

朝鮮は勿論、內地に於ても其の學德をうたはれ、感化の的に著しきは我が退溪先生なり。

先生は四百三十餘年前、今の慶尚北道安東郡陶山面に生まる。生後幾何もなく父を失ひ、赤貧の中に人となりしが、健康なる母の教を守りて學問にいそしみぬ。

十二歲の時、叔父松齋につき論語を學び、『弟子入りては則ち孝、出でては則ち弟。』の句に至り、感歎して曰く、『人の子の道まさにかくの如くなるべし。』と。これより、ひたすら身を愼み、德を磨きて寸時も怠らず、後京城に出でて學び、當時の難關たる官吏登用の試驗に合格して官途につき、しばしば文教の重職にあたりて、其の功少からざりき。

(1)『感歎して曰く』とは、だれが感歎していつたのですか。
答
(2) 當時とはいつ頃ですか。
答
(3)『ひたすら』を使つて、短い文を作りなさい。
答
(4)『人の子の道まさにかくの如くなるべし。』を口語體の文に直しなさい。
答
(5)『かくの如くなるべし。』の『かく』は何をさしますか。
答
(6)『文教の重職』のわけを書きなさい。
答

國語科(甲) 第二日分
(其二)

二、次の括弧內の言葉に振假名をつけなさい。

『此の手で物が握れるやうにならないものか。』これは(物心)ついてから、(片時)も博士の(念頭)を去らぬ願であつた。

(額)づく　(伴)ふ　(次第)(修行)(相談)(心遣)ひ　(薄暁)(始末)(口調)(平凡)(歓聲)(健氣)

國語科(乙) 第二日分
(時間六十分)(其一)

一、次の文を讀んで、後の(1)から(6)までの問に答へなさい。

支那幾千年の人物中、大聖として長く後人に敬はれ、德化の尚今日に著しきもの、孔子に及ぶはなし。孔子は今より凡そ二千五百年前、當時の魯即ち今の山東省の地に生れたり。少時より學問に勵み、長じて後魯の君に仕へ、大いに治績を擧げしかども、奸臣の爲にさまたげられ、久しく其の職に居ることあたはずして魯を去りぬ。

當時支那は數國に分れて互に相爭ひ、戰亂止むことなかりしかば、孔子大いに之をうれひ、如何にもして國家を治め、萬民の苦を救はんものと、廣く各國をめぐりて、用ひられんことを求めぬ。しかも遂に志を遂ぐることを得ざりしかば、老後は專ら力を教育と著述とに用ひたり。

(1)『長く後人に敬はれ』の『敬はれ』は、だれが敬はれるのですか。
答
(2)『當時支那は』の『當時』とはいつ頃をさしますか。
答
(3)『用ひられんことを』と『用ひられぬことを』とのちがひを書きなさい。
答
(4)『孔子に及ぶはなし。』の『に及ぶはなし。』を使つて短い文を作りなさい。
答
(5)『著述』のわけを書きなさい。
答
(6) 孔子は魯を去つた後、何をしようと思つて各國をめぐつたのですか。
答

國語科(乙) 第二日分
(其二)

二、次の括弧內の言葉に振假名をつけなさい。

此のやうに(便利)なものも、其の(使用)に馴れきつてしまつてゐる我我は、これについて(事新)しく便利を感ずることもない。

(松並木)(經)へる(工合)(氣注)(修行)(地殻)(經文)(出現)(馬力)(建設)(大著)(萬朋)

淋疾の 內服最新藥

前大阪府立性病科醫長 向井利一先生 御指導
陸軍藥劑官 藤本清太郎先生 創製
醫學博士 岩切友志先生
醫學博士 木村嚴先生
醫學博士 遠藤益市先生
實驗推奬

執拗한淋疾

執拗한淋疾은 心身共苦痛을주며 全生涯의苦悶中에 끗치는 悲哀로운 人生의慘敗者가될도 瞬間의性的過失이라하면 實로 慨然한것이라고 아니할수업다。

一日淋疾에빠젓슬때이것을 閑光的으로 治療를 期하지안흐면 遼遠한將來에 다시 求할수업는悲運을 後悔하게된다。

世上에하고만흔 淋疾患者가 簇出함을 볼도이모도 治療의不完全과 治療에 게을리하는때문이다 이點에 만히考慮하고 研究하야 急速度로 이悲慘事를 求할目的으로서 製劑한것이 新製劑カバーカバ錠이다。

巷間에서 販賣하는 淋疾藥과는 比較服用하야 白眉의 特徵이잇서 가장自信을 가지고잇다。

特徵內容

一、本劑에는 南洋産『カバーカバ』樹의 治淋鎭定의 主要成分을 濃縮主劑로하고 더욱이 治淋高貴藥七種을 化學的으로 配合하야 卓越한治療効果를 完備햇다
二、淋疾의苦悶을 極히迅速하게 消退식힌다
三、尿道粘膜에對하야 特殊한局所緩痺的 鎭靜作用을주고 排尿時에疼痛知覺을 輕減하며 溷濁尿를 淸淨케한다、
四、本劑에는 健胃劑四種을 合理的으로 綜合하고 決定的으로 健胃性을 保存한고로 消淋藥服用할때併合하는胃腸障害를 完全히 補足하는特徵이잇다。
五、本劑는從來의 不消化性カプセル入을업시하고 一般이 服用하기쉬읍게하고저 糖衣球錠으로 하얏다。

【適應症】急性淋疾、慢性淋疾、消渴、攝護腺炎、淋毒性膀胱加答兒、其他花柳病性疾患

包裝 五〇錠入 一圓　一〇〇錠入 二圓　二〇〇錠入 三圓五十錢
實費用 五〇〇錠 ……　一〇〇〇錠 ……

但し實症用一個分

㊎カバーカバ는全國藥店에잇슴
カバーカバ라指示하고 萬一品切인때는 直接發賣元으로 振替또는代金引換으로 注文하면密送한다
(前金注文은 送料不要郵券代用도可)

代理店 京城府本町 山岸天佑堂
製藥所 大阪 カバーカバ藥化學研究所

★各地의 有名藥房에잇슴
藥을살때에 カバーカバ라고 指定하시오

最新治療劑 カバーカバ錠 (가바가바)

月經

月經不順並寡少
月經痛、神經衰弱
憂鬱症、心悸亢進
頭痛、逆上、耳鳴
腰部、四肢冷感에

女性호르몬

オバホルモン은國際標準品에全혀一致한結晶性卵胞호루몬製劑로서 女性特有의機能을發現식히는他卵巢機能을活潑하게하며、活力減衰한諸臟器의機能을賦活케하고新陳代謝를 놉히며、女性의健康을保護增進하게한다 또乳汁分泌不足授乳中途에乳汁量減少하는때에써서分泌量을增加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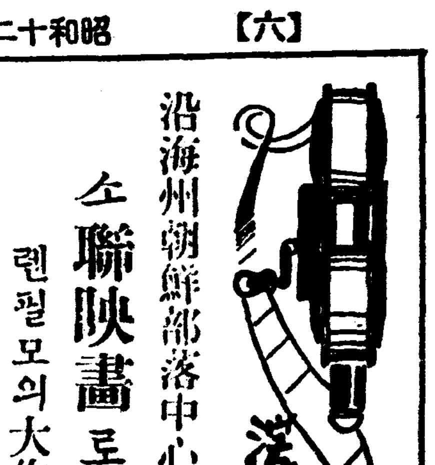
錠劑(百單位)
粉末(五百單位)
(一瓦=千單位)
注射液

全國有名藥店에잇다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루몬)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川崎市大宮町

㊀武田發賣品



沿海州朝鮮部落中心 소聯映畵로 케이슌

렌필모의 大作『極東』

監督와시리에프兄弟가指揮

소聯의 렌필모의 監督에스及와시리에프兄弟는 前者에『차ー파에프』라는 大作을내여서 好評을 바덧는데 요사이는『極東』이라는 作品의 撮影을 시작하얏다 이『極東』이란 作品의脚本은 와시리에프兄弟共同作으로서 極東에잇서서의 反蘇陰謀와 빨치산戰爭等을테ー마로한陰謀映畵다이材料는極東特別軍總司令官베・부롯헬將軍과 포스토이세프將軍으로부터提供한것이다撮影隊의本部는지금하바롭스크市에두엇스며 極東特別軍의 積極的援助와內亂戰의 生存者들의 參加를바더서 撮影隊長代理베・아코브레프 監督助手 유・라베로프등 幹部들이撮影을 빨리하고잇다。

한편 우라디오스토크等 中心한 沿海洲撮影分隊에서는 그地方의 農漁村 住家風俗等을 撮影中이며 朝鮮部落의 家內生活과 風俗習慣等을 카메라에 넛코잇다。

이映畵의 撮影을爲하야 演員된 人員은모두 二千餘名에 達하며費用도莫大하다(무비타임스)

라디오

十八日(木曜)

◇午後六時 京城齊唱과輪唱 一、齊唱…閑歌 二、同…개 三、獨唱…동리의원(?) 四、齊唱…눈사람 五、同…하모니카 六、同…어름 七、同…개고리 八、同…햇빗 九、同…무명초 十、同…꿀돼지 十一、同…시계 十二、同…단풍입 피아노伴奏 鶴子 安國幼稚園兒童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敎育과個性 京師 李寅基

◇同七時三〇分 講演 建築의意匠과裝飾 朴吉龍

◇同八時〇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湖南歌 나、唱劇調 沈淸歌中皇城으로가는데 金錦岩 鼓手 池龍九

◇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洋琴 金蕉紅 丁山紅 大笒 金相淳 杖鼓 金永根 金一宇

◇同九時〇〇分 라디오小說『月給날』 韓仁澤作 金福鎭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二曲라尺八 ◇同六時(城)童謠 ◇同六時二五分(城)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城)講演 ◇同八時(大)라디오社會曲 ◇同八時二〇分(東)義太夫 ◇同八時五〇分(東)國民歌謠오페라

十九日(金曜)

◇午後零時五分 노들江邊外 一、노들江邊 二、도라지打鈴 三、興打鈴 四、사발歌 五、靑春歌 六、咸鏡아리랑 黃順子 大笒 金永根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고초장에對하야(二) 崔在瑞

◇同六時 地理이야기『스에즈運河』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植物의繁殖 李德鳳

◇同七時三〇分(平) 講演 崇專 李勳求

◇同八時 游山歌外 一、游山歌 二、小春香歌 三、제비가 四、平壤歌 金花仙 金映山紅

◇同八時三〇分 古談 閻羅大王 崔汝成

◇同九時 寶塚樂 一、十一의우인舞曲『베ー토ー벤作曲 二、四舞曲『우인氣質』요한슈트라우스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로바ー트・복랑구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名)落語 ◇同六時(仙)이야기와鄕土童謠 ◇同六時二五分(東)俚謠講座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城)舞臺中繼 ◇同八時五〇分(東)小唄 ◇同九時(東)寶塚樂

二十日(土曜)

◇午前九時 平壤高普校入格者發表(平壤)

◇同九時三〇分 京城第一高普校入格者發表(京城)

◇午後〇時五分(東) 만돌린五重奏 一、行進曲『御園內에서』 伊太利르타…달장作曲 二、夜曲『離別』…레시엔作曲 三、노래하는道化師…구르로作曲 四、메뉴엣드舞曲…메차카포作曲 五、夢想曲『사랑스러운사람에』…아론作曲 六、아라비아風의舞曲…산초作曲 七、볼데로舞曲…알바作曲 第一만돌린 吉井俊二 第二만돌린 有岡一郎 만도라 高久肇 만도첼로 佐藤信郎 키타 小林行治 루ー수・친테三

◇同一時一〇分 京城商業入格者發表(第一放送)(京城)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약념이야기 梨專 金浩植

◇同六時 兒童劇『가치가치山』 京城女子師範附屬普通學校兒童 指導 金琦海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春分과太陽 梨花女高 韓炳表

◇同七時三〇分 週間時事 朝鮮日報 洪陽明

◇同八時 流行歌 一、新農夫歌…金駿泳作曲 二、못잇는꿈…江口夜詩作曲 三、꽃새야웨우느냐…竹岡信幸作曲 五、건둥이러온다…金駿泳作曲 六、順風에돗달고…古關裕而作曲 七、빗나는靑春…江口夜詩作曲 伴奏 DK管絃團 姜弘植

◇同八時三〇分(平) 戀心歌外 吳明姬 裵蓮月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劇調 沈淸歌中深夜中流 金如蘭 鼓手 池東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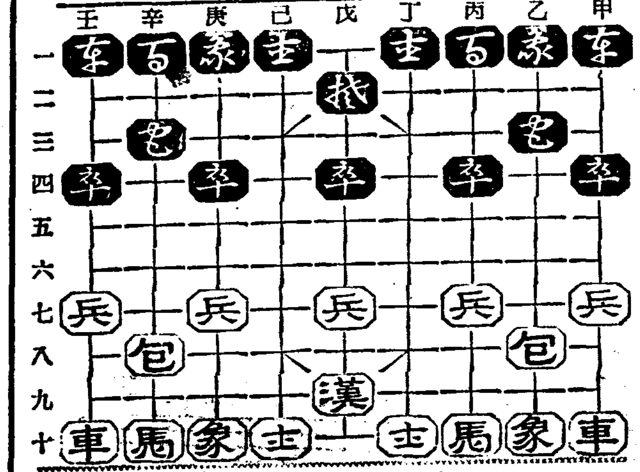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만도린五重奏 ◇同六時(大) 幼兒에의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大)唱歌 ◇同九時 時事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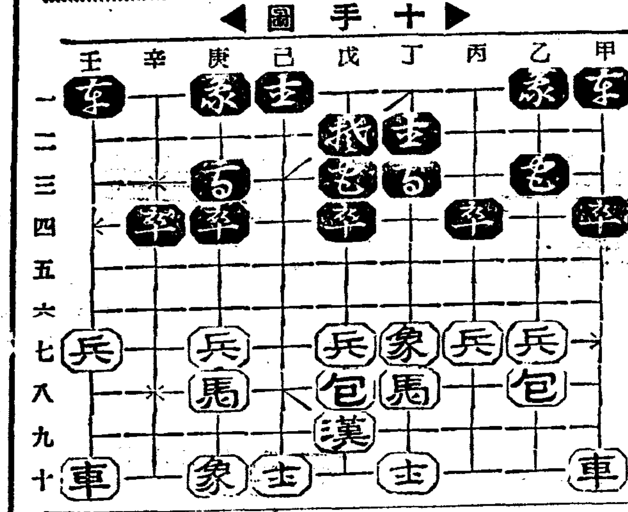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漢 李在鳳 楚先手 金千石

◀始局圖▶



◀十手圖▶



甲七兵—乙七
壬四卒—辛四
丙十馬—丁八
辛二包—庚三
辛十馬—庚八

辛三卒—戊三
乙十象—丁七
丙二包—丁三
辛八包—戊八
丁一將—丁二

藝苑實話 歎息하는피에로(上)

姜石齊

過去二十年間 나의 生活이란 말할수업시 거치러운 生活이엇섯다 가난한집五男妹中 셋재로 태여나서 敎育도겨우 初等學校(淑明女普校)까지만 卒業하엿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열살적에世上을 떠나신후 빈몸만가진 우리家族은 거리에서 彷徨하다시피 되엿섯다 내우로언니와 오빠가게시나 그때에는 모두 어린少年少女이엇기 때문에 生活의 方途는 아조漠然하얏섯다。

아버지가 도라가실때 가래서는 天崩地陷한듯 우리食口는 살지못할것과 가태섯스나 하늘이無心한 사람을 내여 노치안는지 우리들은 그래도 生命을 延長시켜 와섯다。 아버지가 도라가신후에 언니와오빠는 薄俸이나 月給生活을하게되니 그때부터는 朝取夕粥의 歎息은 免하얏섯다 그러나 그亦얼마가지안어서 不得已한 事情으로因하야 언니와 오빠는 職場을떠나서 失職當하게되니 우리집안은 또다시 愁雲에싸히게되엿섯다 그때는 벌서나의나이도十九歲란 芳年의處女가되엿섯스며 이동생石燕이는十六세의 時節이엿섯다 나는때맛침 景福宮內에서博覽會가 開催되엿스므로女看守로서 職業엇고 石燕이는 裵龜子舞踊硏究所에硏究生으로 入所하게 되엿다 나는 每日 博覽會場에 出勤하야 나의 마튼일을 誠實히 보앗다 바로 그博覽會가 거진끗막게되던때 十月會의 朴春岡 朴宗貴 兩氏의 指導를 맛나서 十月會에 石燕과가치 入會하게되엿섯다 그때에 十月會는 朝鮮劇場과 握手하야서 어떠케 새로운 힘을 어더보겟다고 하든때라實地로는 엇더케되엿던지間에 그때의 氣分만은 썩조왓섯다 그러나 그것은 몃칠이 繼續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複雜한 事情으로 朝鮮劇場과 손을끈케 되엿슴으로 우리들은 [illegible] 일흠보게되엿섯다 朝劇에서十月會가興行한지不過 얼마못되여서 地方으로 巡業을가게되엿다 엇쨋든 京城에서 生長한내기 地方을 가게되니 신기하기도하며 또한 이상스런 感激을 바덧다 그때 地方으로 興行다니든 그時節은 언제던지 이저버릴수가 업다 그후에 十月會는『大長安』으로 變하고『大長安』이『太陽劇場』으로 名稱은 작고 變햇스나 藝房에甘苦모양으로 姜石齊가 빠저본일은업다 어느듯歲月은 흘러서 三年이란 時日도 지나서 나의나이는 二十二歲가 되든 가을이엿다 太陽劇場이西鮮으로 興行떠나려고하든 前日이엿다 幹部側에서는 나를期於히 끌고 가려고하고 나의親族과 周圍의사람들은 興行가는데 여간 反對가猛烈햇든것이 아니엿다 그러나 나는언제든지 出演하는것이 몹시 그리웟스므로 萬難을 무릅쓰고 떠나기로 決心하엿던 것이다 그러나 그西鮮巡行이 나에게 肉體的으로나精神的으로나 致命的傷處를 줄니야꿈엔들생각하얏스랴 이것이 나의運命의分岐點이엿다 興行가 仁川에서 興行하얏슬때에 A劇團의主要幹部 S氏와K가 우리劇團에加擔하게되엿다。S氏는 開城에서 脫退하야버리고 K는 西鮮巡行을맛칠때까지 아니太陽劇場과가티 運命을가치한셈이다『只今도 太陽劇場은 地方으로도라다니는모양이나 그때의太陽劇場과는 모든條件이 달다진것이다』 K가우리劇場에 드러와서S와가치行動를 가치하지안는것은 石竹단 올드미스가 잇기때문이엿다。仁川에서부터 나에게 求婚하엿던것을 누가 알앗스랴 그가 생김생김이 양선곱잡잔흔 性格의 所有者로 만앗엇지 그마음한구석 그러케도 검검한 欲心이 잇는줄이야 꿈엔들 생각하얏스리요 엇젯던 興行나간지 몃칠이안되여서 나는 完全이 K의捕虜가되고마럿다그의사내다운 氣質과 그의親切한 行動에 完全이 征服되고만것이엿다 두사람사이는 漸次기퍼감을따라서 幹部側과 또는 오빠께서도 大端이 心配를하서서여러가지로 懇曲히 忠告는해주엇스나 戀愛는 盲目이라 엇지나 [illegible] 忠告가귀에드러올리가잇스랴 남이 忠告하고 離間을하랴면 할수록 우리들의 사랑은더욱 기퍼갈따름이엿다 興行을맛치고 도라온後에는 우리는 한시라도 떠러저잇슬수가업섯다 京城에 도라온後에太陽劇場은解散의運命에다다럿다 나의落望나의悲哀는 形言할수조차 업시되엿다 太陽劇場이야 解散이되던안되던間에 나에게 別問題가 업지마는 우리의戀愛가 悲慘하게시드러진것이 안타가웟다

나의周圍에는 모두다 K를反對할사람뿐이엿다 그래서 나는 몃날을두고 이問題때문에 寢食을廢하다시피하엿다 機會는다시왓다 太陽劇場은다시살아나게되엇다 團體가木浦로 卽行하야興行을거슬려하여서 京城으로오게하도록 作定이 되엿다 木浦로 떠나던날밤의 나의 기쁜마음은 지금도 이저버릴수업다。이때의 나의생각가운데는 이宇宙에다만 K가잇슬따름이다 父母도 兄弟도업섯다 團體의木浦成績은 如意하게되여서 順調로히 湖南地方을 興行하게되엿다 그리고그때부터는 別로拘束을바들곳도업시 우리는만나기도 自由스럽고 모든것이 結婚한夫婦生活과가탓스니 비록劇團속에잇슬망정 생각은 이것이우리의 파라다이스라고생각되엿섯다 이즐래야이즐수도업시되엿다 그러나周圍에서는 反對가이러낫다 내自身이劇團生活을하나 나의家庭에서는나로 하야금 劇人에게는 絶對로 婚姻시키지안홀것이다 이것은勿論나의 將來의幸福을 爲하야서 그러는것이나 그러나 나는여간 원망스러웟던것이아니다 그興行을맛치고 京城에도라왓스나 그러나 나는이事由를 어머니께엿줄수가 업섯다 비록엿준다고해도 우리의사이를 承諾해주실理도업다 어린나의가슴은 너무나 억울하야서 어찌할바를 몰랏섯다 나는 이루어지지못한 사랑을 따라 또다시 그와함께北鮮興行을떠나지안흐면 안되게되엿섯다。(스틸 姜石齊)

切取線

東洋時計 一枚一名限 大割引券

此券을切取하야便紙에封入하야申込하면代金引換으로發送함

東京 東洋時計會社

時計 (番) 個 圓 錢

左의堅牢正確無比한時計를 質處分廉價時奉仕코저압으로 十日間內에申込者에게限하야 左의廉價로投賣한다 便紙속에上記大割引券을切取하야封入申込次第代金引換으로發送한다 十日間內라도賣切이되면謝絶한다

〔イ〕實用時計 機械スイス産 クローム側

(イの一番)(五十個限り) 丸十型七石入アンクル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十圓の品を 大特賣中 三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二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入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十三圓の品を 大特賣中 四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三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入十年間保證付 當社定價十四圓の品を 大特賣中 四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四番)(三十個限り) 新變型十半十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十八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五番)(三十個限り) 新變型九型十半十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二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六番) 七石入アンクル 國產 保證書付 十六型 當社定價十五圓の品を 五圓八十錢に投賣

(イの七番)(三十個限り) 切子變型八型十五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廿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八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八番)(二十個限り)婦人用 最小型十半型十五石入アンクル十年保證 當社定價四十圓の品 大特賣中 十二圓に投賣す

(イの九番) ウォルサム 十六サイズ 七石入 [illegible] に投賣す

(イの十)(三十個限り) 最優秀機械九型十半十石入アンクル廿五年 保證書付 當社定價廿七圓の品 大特賣中 七圓九十錢に投賣す

(イの十一)(三十個限り) 夜光時計 十型十石入アンクル廿五年 保證書付 當社定價廿八圓の品 大特賣中 八圓七十錢に投賣す

(イの十二)(三十個限り) ウォルサム製 七石入アンクル廿年間 保證書付 當社定價四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七圓に投賣す

〔ロ〕高級時計 機械スイス産 金側 八型婦人用 (金側は造幣局保證檢定刻印付の品なり)

(ロの一)(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質保證)當社定價三十三圓の品 大特賣中 十三圓に投賣す

(ロの二)(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質保證)當社定價三十三圓の品 大特賣中 十三圓に投賣す

(ロの三)(三十個限り) 切子變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金質保證)當社定價四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五圓に投賣す

〔ハ〕最高級時計 機械スイス産 側國產プラチナ側

(ハの一)(三十個限り) 新變型十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九型 當社定價三十三圓五十錢の品を 大特賣中 九圓に投賣す

(ハの二)(三十個限り) 新三昧型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八型 當社定價四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に投賣す

(ハの三)(三十個限り) 丸婦人用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八型 當社定價四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に投賣す

(ハの四)(三十個限り) 新舟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 八型 當社定價五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六圓に投賣す

東京市杉並區荻窪一丁目大通

東洋時計會社

電話荻窪四一三三番 電話荻窪四〇〇四番 電話荻窪二七九四番 振替東京一九一六一番

(への二) 目覺時計 當社定價二圓の品 九十錢に投賣す

〔ホ〕寶石入プラチナ指輪

(ホの一)十個限 白サファヤ入プラチナ指輪 當社定價五十圓の品を 十五圓に投賣

(ホの二)十個限 眞珠入プラチナ指輪 當社定價五十圓の品 十五圓に投賣す

(ホの三)十個限り ダイヤ入プラチナ指輪 當社定價七十圓の品 三十圓に投賣す

指の寸法

糸又は紙より紙で指の廻りか輪に結び其の輪をお手紙に添へてお申込下さい。

〔ニ〕寶石入金指輪 (金質は全部造幣局保證檢定刻印付の品なり)

(ニの一)廿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八圓の品 二圓五十錢に投賣す

(ニの二)廿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十圓の品 二圓八十錢に投賣

(ニの三)廿個限 靑サファヤ入金指輪 當社定價十二圓を 三圓五十錢に投賣

(ニの四)廿個限 淡紫色ハートマス入 金指輪定價十五圓を 四圓七十錢に投賣す

(ニの五)廿個限 淡綠アメジストン入 金指輪定價十八圓の品五圓に投賣す

(ニの六)廿個限 眞珠入 金指輪 當社定價廿圓の品 五圓五十錢に投賣

(ニの七)廿個限 眞珠入 金指輪 當社定價廿圓の品 五圓七十錢に投賣

(ニの八)廿個限 黑石(ヘマタイト) 金指輪當社定價廿五圓の品を 六圓に投賣す

(ニの九)廿個限 眞珠大石に廻り小粒白サファヤ數入 金指輪當社定價十圓の品 に投賣す

(ニの十)廿個限 黑寶石(ヘマタイト) 金指輪 定價廿圓の品五圓三十錢

(ニの十一)十個限 ダイヤ入 金指輪 當社定價五十圓の品 十五圓に投賣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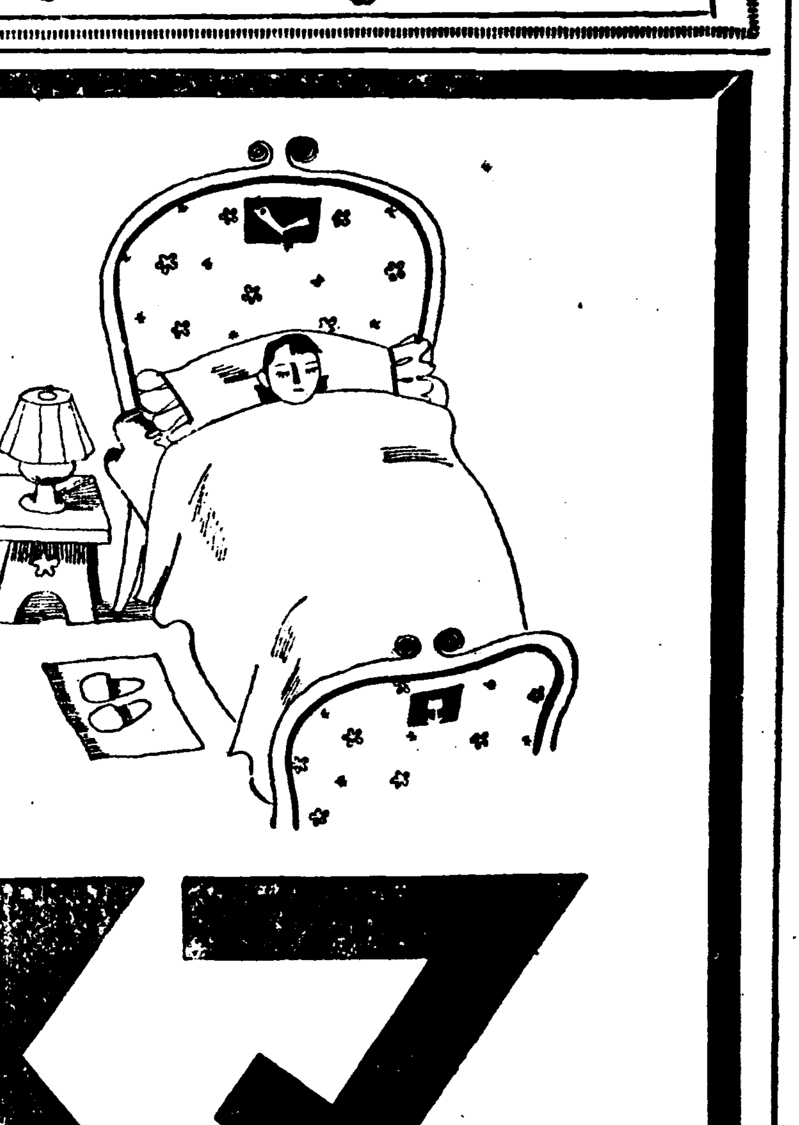
マスター 마스타

紅 口 紅 ほ

化粧을 안한것보다하는것이 効力이잇다……마스타ー빨연지、입술연지는血色 그대로自然히色飾하게되여오래간다

살결을곱게만드는 優秀한콜드크림의

세가지條件



肌の清淨力

過度한洗顔은 살결을서걱서걱하게하며 華美한淸淨力을가진마스타ー콜드크림으로도 씻처지지안는 深部의때까지씻처내여고흔살결을만든다

榮養が强い

마스타ー콜드에配合한 獨逸特許스긔호루몬性劑는 滲透力이强하고잔주름을업새여 彈力이잇는살결을만든다。

ベトつかぬ

마스타ー콜드는맛사ー지에 最適한粘稠度로살결에 吸收가잘되여 끈적이지안코爽快한맛을준다

マスター コールド クリーム

마스타ー콜드크림

"一葦帶水"에 渡航阻止는 犯罪助長의 張本!

이때문에最近四年間犯罪者千七百名인족 어서撤廢하라" 安議員痛擊

慶南道會席上서

【釜山】경상남도도회 제사일인 지난십칠일 회의석상에서 울산(蔚山)선출의원안겸식(安兼植)씨로부터 일본내지도항조지(渡航阻止)문제에대하야 민정을 무시하고 현실을인식하지 못하는경책이라고 전제한후 날로 궁핍화하야가는 농민다 농업로동자들은 비교적 유리하고 안전성이잇는 일본내지 로동시장을 차저서 매년수만명이 도항을 원하는데 당국은 여러가지의 구실로 이를 조지하고잇서 그로동자들은 살길을 찾기위하야 기어히도 상하지안흘수업는딱한 사정에 절박하야 이기대문에 가진수단을 취하야서라도 도항을 하려고애쓰고잇서 이로말미아마 가지가지의 범죄가 생기는동시 최근사개년간에 소화십년도부터 동십일년도까지 범죄건수구백오십여건 관계자인원 일천칠백여명에 달하는데 이는도항조지가 낳은범죄이고 도일하려다가 발각된것이 소화십년도 일천칠백여명 동십일년도 일천칠백여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더구나 일반상인 학생 시찰단 모든경우에도 긴급을요하는 도항이 여게까지 그까다로운 수속을 밟게하여 시기를일허서 막대한 해를당하는 사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동시 야사십여분간이나 론난하야 부당한도항조지를 철폐하라고 절규하얏는데 일반의원들도 동감이라고 찬동하야서 일반도민의 절실한요구인것을 표명하얏다 그런데 토사(土師)경찰부장으로부터 동문제가 중대하다는것은 사실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속답할수업스나 될수잇는대로 힘쓰겟다고답변하얏다

三萬坪基地物色 庶民部落을計畫

社會的施設과自立可能을圖謀

清津府의重要事業

【清津】청진부에서는 금번도시로 몰려드는 로동자가 시내각처에산재하야잇서 그들의생활에 지장이잇슴은 물론 한편으로 당국의처지로서도 사회경책상 이를한곳에 적당하게집중시켜 소위서민부락(庶民部落)을 만들고저 진즉토지의 매수교섭까지 하고잇다 기지매수비로 이만여평의 대금사만오천원을 신년도예산에계상하얏다 이지점은 처초예정으로 지적한 수성천(輸城川)넘어해안에 가득한곳을 물색하고가격까지 내정하엿스나 일철(日鐵)제철소시설이 마치가든장소에 위치결정을 보게되얏슴으로 부득이 구역내에들게된 부분은 이를달리 장소를물색하기로하야 극비밀리에 기지를찾는중이라한다 서민부락의 설치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설과 편리를 보아주리라는바 탁아소(託兒所)이외설놓의 사회적시설과 하편 이들에게는 장래 그기지를 각자가 매수하야 마치자작농창정(自作農創定)가튼결과에 방불하게만드리라한다

鰒魚끄려먹고 또八名中毒

一名死亡・七名救助

【釜山】경남동래군정관면달산리(東萊郡鼎冠面達山里) 리장림(李長林)씨집에서는 지난십사일오후륙시경 복생선(鰒魚)국을끄려먹고 그가족여덟명이 중독에걸려서 고통을박고잇는데 리장림씨는 이주후으로 동일오후십시경 절명하얏고 남어지가족들은 불행중다행으로 생명에는 별관계가업다고한다

擴充運動水泡

住民、處事를非難

楊口亥安公普校

【楊口】강원도양구군 해안면은(江原道楊口郡亥安面)군청소재지로부터 칠리이상시점에잇는 벽지중벽지로서 도솔령(兜率嶺)이라는 해발일천미(海拔一千米)이상의 준령이가로노혀 외래의모든 문화혜택을 도무지밧지 못하는지대인바 주민은농가 칠백여호이나 교육열에 끌는 열성은큼으로 벌서사학긔관으로 륙십년간 사립학교를경영하여오다가 거금사년전에 보통학교로 편입한후 이학급 사년제로 복식교수를하여오든중 교통이불편하고 인근각학교에서도 거의전부가 수용과잉을이루는형편임으로 학년연장기성회를조직하야 기본금이천오백원을조성하기에 주우와 농량을팔매하여 눈물겹게 모아노코나니 당국에서는 처음의약속을 저바리고 승인을 하지안는다하야 지난십오일 오전십일시경에 금년졸업생삼십여명의 학부형이 해안보통학교사무실에모혀 당국자들을 초청하여노코 금년졸업생을 내나는것은 학년연장의 배신행위이니 졸업장을 받지안켓다하고 기성회책임자인 김순경(金順慶)면장의 당국과교섭전말의 경과보고를 드른후 모다눈물을흘리면서 폐회하엿다는데 학부형대표중의한사람인 장형(張亨)씨는다음과가티말하나 학부형의한사람으로서 아모런불평불만보다 겨우 졸업이라고시키고보니 다시 륙학년과정을 맛치게 하자면 다른학교로 보내야 할터인데 동면이나 양구읍으로 보내려하나 그곳도모두 초과되므로 금기야는 중등학교입학도 단념식히게되니 이런 중대문제가어데잇습니까! 소를판다 업는농량을 판다하야 겨우근근이천오백원기본금 조성되고보면 무위 설치하여 준다든 군당국과 기성회책임자들의 모호한 답변과 성의업는 소위가 분하기 그지 업습니다 하여튼 학부형회에서는 졸업장을 밧지 말자는 제의도잇섯습니다마는 다시더철저한대책을 강구하겟습니다운운

大邱南門市場

十六日開場式

【大邱】대구남문시장은 기보한바와가티 십륙일오전십일시부터 개장식을 거행하엿는데 장내는 인산인해의 대혼잡을일우엇다

果敢한白露人

强盜를넉・아웃

【清津】지난십오일 새벽네시쯤되여 청진시내 포항동(浦項洞)【시베리아】양복점이라는 백계(白系)로서아사람의 전방에 복면강도가드러가 주인 【러시소에표】씨에게 단도를들고 돈을 내라고 위협하엿으나 이어주인은 돈을주는체하고 겨에방으로 드리고드러가도 적을 단번에 넉・아웃시켰음으로 돈을 주지 아니하고 가슴이결려서 그대로 뛰여나고 마랏다하야 이급보를 접한 청진서사법계에서는 즉시출동하야 범인수사의 경계진을 펴고잇스나 아직 체포하지못하고잇다

南浦大連間運航

南浦海運界喜報

【鎭南浦】진남포기선회사(汽船會社)에서는 오래전부터 진남포와 대련(大連)간에 항로운항(運航)을 계획중이든바 구체안이 성립되여 지난 사일 제일선으로 대인환(大仁丸)(一五〇噸)이 광석을 만재하고 진남포를 출범하엿다가 지난 십오일 역시 화물을싯고 귀항하엿다는바 압흐로 계속하야 대안환(大安丸)까지 세척으로 항로운항을 하리라고하야 진남포해운계의 명랑한 뉴쓰를 전하고잇서 역시 진남포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잇는 이다

迷信의惡弊

兩便喪輿軍들끼리 압길다퉈亂鬪

雙方다負傷코맞告訴

【木浦】지난십륙일 오후한시경 두상여(喪輿)가 마주가게되여 한편은 김봉옥과 익산(益山)의 상여를 메이고가다가 그와가튼 충돌이 생겻든바 서로 뒤에서지안켓다는 군중심리가 격발하여 언쟁하다가 마참내 일대란투극을 연출한사실이 목포부내에서 발생하얏다 부내한정리사는 조석녀(曹昔女)의 상여를 메이고 도숙(崔道淑)의 상여를 메이고 [illegible] 부상을입고 십일일의 진단서를 첨부하야 목포서에다 고소를제기하엿다고한다

工場村의變死者 七百七十名多數

咸南道內昨年中統計

【咸興】공장지대 함남도에서 작년중 변사(變死)한사람이 얼마나되는가 함남도경찰부에서 조사한 통계를보면 총합계칠백칠십오명의 다수로서 그중일본내지인이 이십사명・조선인이 칠백사십칠명 외국인 십사명이다 변사종별로보면 익사(溺死)가수위로서 일백륙십팔명 동사(凍死)가 구십칠명 압사(壓死)가칠십삼명 그리고 아사(餓死)가사십명이나된다 이외에 력사(轢死)가 오십칠명 추락(墜落)이사십구명 중독(中毒)도 십륙명이나된다 그리고 이변사자(變死者)는 해마다 격증한다고한다

江西地方에痘禍 患者벌서數十名

當局에선防疫에腐心

【江西】강서지방에는 한동안잠렬이 천연두(天然痘)가 류행하야 잇는바 요지음에 또다시각처에서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는 동시에 그로말미암아 생명을일은자도 수명이되며 현재신음환자가 수십명에 달한다하야 금 강서서(江西署)에서는 그방역에 주력하고잇다한다

大寶炭坑서爆發

坑夫四名重傷코入院

【平壤】대동군대보면봉인리(大同郡大寶面鳳仁里)대보탄갱(大寶炭坑)에서는 지난십륙일 [illegible] 갱내에서 "다이나마이트"로 발파공사를하든중 폭발되여오 도명은 치료삼주간 다른한명은 치료이주간의중상을 밧고 평양도립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小作料請求訴

터문업는作人에

【鐵原】대지주인 경성부중도이정목 손준호(孫俊鎬)(假名)은 철원군 갈말면 문혜리(鐵原郡葛末面文惠里) 시용주(時鎔周)라 양동엽(梁東燁)등을 상대로 소작료청구소송을 지난십오일 경성지방법원철원지청에 제기하엿다 피고들은 작년의 흉작으로인하야 자기들이먹을것은 고사하고 소작료보낼것도 못되여 추수하기전에 몃번이나 감료를 구하얏스나 감료도 하지안코 면세수속이나 하야달라하야 소작인들은 면세수속까지 마첫스며 가을이되자 곡식을 떨려 한알도 남기지안코 지주에게 갓다주고 이날까지 집에서 살어오다가 이제는 할수업시 부모처자의 소복을 이끌고 남부여대 떠나야할가련한소작인에게 삼천이백원의 대금이백칠십원을 바다달라는 위임을밧은 모(某)변호사의 변론을 들어 피고들의 마음을 한층 조롭게하야 피고들에게 동경을주고잇다 원고는 중인신임을 하야 오는이십구일에 다시개정되기로 되엿다한다

工費五千萬圓의 黃水院水電着工

總發電力二十萬키로

【咸興】황수원강(黃水院江)수력전기회사의 공사는 단풍선(端豐線)철도의완성과함께 오는구월부터는 본격적 공사에 착수할터이라고한다 총공사비는 오천만원으로서 소화십오년도에 준공할 계획인데 완성후에는 이십만키로의 발전을할수잇다고한다

元山第二敎育部會

【元山】원산부에서는 십칠일오후한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제이부교육부회를 개최하기로하얏스며 그의일인 십구일에는 제일교육부회를열고 이십이일부터는 일반부회를 개최하고 십이년도 예산안을 심의결정하리라고한다

地方人事

▲梁東鎬氏(鐵原公立普校校長)新任人事次本報大浦支局來訪
▲尹俊泰(郡守)氏白川郡衛任人事次本報南川支局來訪
▲竹永秀慶氏(新沙里警察署長)海州警察署轉勤人事次本報沙里院支局來訪
▲金鳳瑞氏(沙里院警察署長)轉勤人事次本報載寧支局來訪
▲金應洙氏(私立海州救世病院醫師)去十五日身病으로別世

移民간집됫處理中 아!爆發・二名重傷

咸州郡眞興里의慘事

【咸興】지난십오일 오후열시쯤 함주군하기천면진흥리(下岐川面眞興里) 리병성(李炳成)과 강성민(姜成敏)등 두사람은그동리에서 만주이민으로 떠난박모(朴某)의집에가서 가장즙물의 뒷처리를하다가 조고만 돌가튼것을 주어서 하도이상하므로 다른돌에부다처보앗는바 돌연 큰소리와함께 폭발되야 량인의머리와 얼골에 중상을밧고 즉시 장진수전회사병원에 입원시켯는데 두사람모두 생명이 위독하다고하며 하일경찰서(下岐署)에서는 그폭발물을 조사중이다

非常口업는劇場 斷然閉鎖方針

崔保安課長談

【新義州】경조선 보안과장회의(保安課長會議)에 출석하얏든 최(崔)평북경찰부 보안과장은 지난십오일밤 귀임하야 다음과가튼말을 하얏다 제일제이량일간은 도시계획령에대한해설이 잇섯고 제삼일에는 사법행정에관한 타합이 잇섯는데 이번회의중 도시(都市)에서 만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취체와 지난번의 안동현 화재사건(火災事件)에 인하야 흥행취체에대하야 여러가지 협의한바잇섯나 흥행취체에 대하야는 서비에서는 특히 비상구(非常口)를 엄중 단속하기로되엿는데 이에 위반되는 극장(劇場)은 용서업시 폐쇄(閉鎖)를명령하기로 하엿다

三特種植物을 記念物로指定

【光州】전남순천송광사(順天松廣寺)에잇는"이암"나무와 완도군 완도면 죽청리(莞島郡莞島面竹靑里)에잇는 추목(楸木)과동군외면대문리(同郡外面大文里)에잇는가목(榎木)등삼종의식물을 금번에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야천연기념물에 지정하게되엿다한다

出漁中의木船 風浪맛나遭難

死亡、救助各一名

【光州】십륙일오후륙시경 전남 [illegible] 에서 어선이 풍랑을만나 [illegible] 구조하엿든바 사망하고 한명은 [illegible] 전보가전남도에드러왓다한다

長篇小說

그의自叙傳 【86】

長白山人 作 熊超 畵

복간도 (七)

마츰내 엘렌은 그의 예민한 마음으로 내속을 해부하기시작하엿다。
「오빠 무슨 걱정이 잇으서요?」
나는 말업시 빙그레 웃엇다。엘렌이 내 속을 알아맛히는것이 신통하다는것보다는 딱하여서 웃은것이엇다。내 마음은 더욱 무거웟다。
「아마 저의 때문에 오빠께 무슨 걱정이 생기신게죠?」
마츰내 엘렌은 정통을 쏘앗다。
「오빠。오빠는 큰 일을 하시는 어른이시니 저의 때문에 혹이 되서서 쓰겟어요。저의가 오빠께 누가 되거든 오빠 좋으실 도리를 하서요。언니 안 그래요?」
나는 일변 놀라고 일변 감탄하는 생각으로도 엘렌을 보앗다。어쩌면 고러케도 예민할까。어쩌면 내속을 고러케도 들여다보앗다。
차던난 하고 엘렌은 한숨을 지다。
「그럼 저의는 치따로 가지오 봉경으로 가든지。여긔서 어떠케 저의들끼리만 잇을니까。이두메 산스골작이에」
이것은 마가렐의 항의엿다。
「내가 떠난데야 다른데로 가는것이아니오 ○○이에 방을하나 잡고 잇는거인데요。날마다 한번씩 올수도 잇수요。또 T선생말슴이 좋은 노인 한분이 잇다고─저 ○○서 아시지、그 마나님말슴이야요。그이를 오게할테니 적적할것도 없지아나요?」
나는 마가렐의 항의를 이러한 말로 대답하엿다。
「날마다 오시면 도루 마찬가지지요。세상 사람들이 무슨말을 한나면 도루 마찬가지아니야요? 저의들이 멀리로 가버려야 말이 없어지지않니까。」
마가렐의 말에는 불평이 잇엇다。
「아이、언니 웨 그러케 말씀을 하시우? 올아버니도 마음 다 불가。나는 엘렌을 힘껏 껴안고 싶도록 엘렌이 귀엽게 생각하엿다。내 눈이 얼마나 종안이나 엘렌의 크고 맑은 눈을 들여다보앗는지 나는 모른다。
「누님은 어쩌자고 그런 말씀을 하시우? 아즈버니 떠나서 우리가 어떠케 사우?」
하는 마가렐의 말에 나는 비로소 내가 엘렌을 바라보고잇든것을 깨달앗다。
나는 이날은 말을 내지아니할가고도하엿다。참아 떠난다는 말을 내일수가 업엇다。그러나 벌서 방까지 잡아놓은 내가아니냐。나는 마츰내 입을 열엇다。나는 마가렐을 향하야 말하는것이 옳을줄을 알면서도 말하기 편한것을 취하여서 엘렌을 향하야。
「엘렌아!」
하고 불럿다。
「네에?」
「내가 암만해도 따로 방을 엇고나가야겟서。그러는것이 사체에 옳겟서。그래서 방을 하나 잡아놓앗다。」
「누가 무어라고 해요?」
「응。교장선생도 그러케하는것이 좋다고 그러시고。또 학교에는 나를 못 먹어하는 사람도 잇거든。」
「제가 웨 오빠의 친 누이동생이 못되엇을까。내외종간되더라도、조곰이라도 어떠케 되더라도 남들이 무슨 말을 안 하게 괴로우어서 그러시는걸。가기는 우리가 어딜 가요? 전장에 나가신 오빠 오실때까지 오라버니를 따라다녀야지、안 그래요 언니?」
「누님은 오라버니 모시고 여긔 게시구려。난 치따로 갈테유。봉경으로 가든지。누님이야 무슨 상관 잇어요? 나만 가면 고만이지。난 가요。아마 벌서 돌아 가신게지。그러길래 소식이 업지。벌서 일년이나 가까와도 편지 한장 업드니。그리고 날마다 꿈자리만 사납고。어저께도 오빠가 하얀 군복을 입으시고 성당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루야、고 스보시 벌믈루이를 부르고 따라가던데。그럼 돌아가섯서、분명 돌아가섯어!」
하고 마가렐은 히스테릭하게 울기를 시작한다。
「그럴리가 잇어요? 치따령부에는 우리 주소를 아는데 무슨일이 잇스면 기별이 잇지오。전장에 나간 사람이 어디 집에 편지할 여가가 잇나요? 참호생활에 세월이 오는지 가는지는 압니까。그러케 슬퍼하시지마서요。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텐데 무슨걱정 이서요?」
이러케 위로는 하건마는 R에게서 통신이 끊긴것은 나도 근심이 되엇다。월샤와에서 군용우편으로 한 편지외에는 반년째나 소식이 업엇다。

暴君콘의 精力은絶倫
魚族의王이라고할수잇고 ... [illegible]

今や言論の時代 出よ雄辯家
◆演説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雄辯の秘訣を公開す
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

上達雄辯家となる事が出來る ...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高級 アイスケーキ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其他各種 冷凍機特價販賣。豫約開始
代理店。特約店。外交員募集。型錄進呈。製造營業秘法傳授
朝鮮冷凍工業所 釜山府大廳町 電話五六一番

堅實家庭工業
內外地를勿論하고日常消耗品으로販路를有하고僅小資本으로收入을確實히 ... (案內書無代進呈)
大阪北區曾根崎 株式會社 大同貿易商事 電話堀川五五〇番

이은자리업는장갑 장갑製造 製造家募集
大邱 京城 ... 本店 東京神田五軒町

音樂 ...
京城鍾路 ... 振替京城 ...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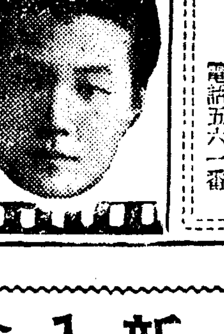
商店 ...

募集 本社에서地方駐在員을募集하오니 ... 日光堂藥品部

讓坐 蓮建町 ... 詳細問議

文化刺繡無料教授
四月十日까지規則書及實物寫眞無料進呈 ハガキ로請求하시요
京城橋南町一二五 京城手藝研究所

流行歌 人生劇場
朴英鎬作詩・文湖月曲
南仁樹
OKEH
오케—레코—드
帝國蓄音器株式會社



宿醉 ノーシン
머리가무겁고、괴롭고、頭痛이나는때에는 ...

眼鏡萬年筆의 仕入은當店에
(K)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認可

全國無試驗開業醫同樣卒業 全鮮唯一認可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規則書送呈)
釜山府草梁町一三五

京城高等音樂學院 男女生徒募集
豫科本科 師範科 ピアノ、ヴァイオリン、聲樂科 各科五十名
願書提出 三月一日부터同月末日까지 試驗期日 四月三日 開學 四月十日
(京城嘉會町一〇八)

寧邊崇德學校 男女生徒募集
一、男子部 第一學年 約五十名 一、女子部 第一學年 約五十名 補缺男子第四學年若干名
一、出願 三月二十七日限 一、試驗 三月二十九日 三十日
平北寧邊城內

京城高等簿記學院
(校舍大擴張)
第四十八回生徒募集 (晝夜) ...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四月十日 ◎中等科第一部第二部(各中等學校入學又ハ編入學受驗準備)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新入會員大募集
今春特典
一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特典으로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贈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三十冊 一年 ... 卒業 (速修)
普通科 十二冊 一年 ... 卒業 (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되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八九九番)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죽은깨 여드름 皮膚精氣
얼골의 잡티 나 죽은깨 여드름 ... 皮膚精氣 ...
十餘年苦悶하던죽은깨가 十五日에全治
(始興)盧鳳秀氏
(平壤)崔昌善氏
皮膚精氣의偉力
發賣元 合資會社 日光堂藥品部
京城鍾路四丁目 振替口座京城一九一四三番

經濟解說

金融分野確立

政府成案을보고서

李 健 赫

朝鮮의 金融統制는 年來의 懸案으로서 昨年九月 朝鮮產業經濟調查會에서도 問題되엇섯고 十一月二十日 朝鮮金融制度調查會가 設立되어 [illegible] 問題化하야 今日에 이르럿는데 [illegible] 政府의 成案으로서 朝鮮內金融機關의 業務分野確定을 傳하여 [illegible] 大藏省과 [illegible] 中心으로 金融業實現되리라 한다.

그 成案의 內容에 對하야서 傳하는것만 가지고 大體批評을 해보면

1、朝銀은 中央銀行으로서 [illegible] 統制機關이 되게하며 [illegible] 業務으로 [illegible] 銀行의 [illegible] 業務 [illegible] 朝銀으로서는 아모 不平이 업고 當然타 할것이다.

2、朝銀과 殖銀의 [illegible] 問題化되어 [illegible] 殖銀은 [illegible] 總督府에서 監督權이 還元될것도 [illegible]

2、다음 殖銀은 不動產金融에 限定되나 殖銀으로서는 業務大縮少이다。現在殖銀은 [illegible] 指定하는 [illegible] 商業金融을 [illegible]

3、東拓에 있어서는 [illegible] 東拓의 投資는 [illegible] 朝鮮에 있어서의 [illegible]

4、그 다음 [illegible] 金組의 [illegible]

이리하야 朝銀은 强化、殖銀은 不動產金融、東拓은 工業金融、金組는 組合員相對로 分野를 確定하자는것인데 政府의 成案이니까 將次 總督府에서 開催될 金融制度調查會에서도 이 大方針을 버서나지 못하고 細目的 解釋으로 [illegible] 運命에 잇슬것도 하다。

金融統制政府成案 原則的으로妥當

調查會에서도이案을基礎로 ─具體案을研究할듯─

旣報＝朝鮮金融分野確立의 政府成案에 對하야 大局的 政治論으로서 金融機構를 如斯히 統制함은 어느까지든지 原論으로서 認치안흘수업고 來六、七月 開催할 豫定인 金融制度調查會에서는 이 原則論을 基礎로서 具體案을 研究키로 되리라고 보고있어서 如斯한 案이 한것은 金融機構改善問題에 一發展을 與하는것이라하야 多大한 注目을 하고있다 한다

金融界에 大衝動

實現性疑問不無라고

綜合意見＝難色을指摘

朝鮮에 잇서서의 金融機關의 業務分野에 對한 所謂機能別統制論이 政府의 成案으로서 傳하야 金融界方面에 大衝動을 與하엿는데 右成案이라는것이 아즉 確定的 實際的 案이 아니라는 意味에 잇서 各金融機關當局은 自己의 意見을 말치 안코 잇다 即 右成案이라는 것은 政論的 概念的 常識的 理論的 의案으로서 一應肯定되는 論이나 朝鮮의 實情에 至하여서는 그 實現性에 對하야서는 疑問視되는 點이 不無하다 [illegible]

各機關의意見

一、朝鮮의 擔保物件의 不動產에 限定되어잇는것

二、從하야 不動產金融、一般金融、工業金融等이라는 明確한 區分의 分野를 確定하기가 不可能에 가까운것

等의 點으로 難色을 指摘코잇다

朝銀＝成案으로서는 論은 아즉 信할수업는 論이나 朝鮮의 中央統制機關으로서 强化되는 것은 當然하다

殖銀＝不動產金融에 限定한다하면 同行에 가진 現業務를 全然無視할수 밧게업는 不動產金融에 限定치안는 不動產金融劃으로 如何히 할가 問題이다 이外에 當局의 不動產金融을 如何히 할가도 問題이다

東拓＝金融專門은 工業金融 의 朝鮮內監督機能을 總督府가 共管한다면 東拓의 創立使命에 鑑하야 不動產金融에 一限하게 되는 것으로 困難하며 東拓의 改組도 必要할뿐아니라 旣存貸出도 問題이다

普銀＝金融統制의 機能及業務分別로 區別함은 理論으로서 妥當하나 實際論으로서 明確히 分野를 決定할수잇슬지 모르나 特히 地方銀行으로서는 不動產金融을 除外하야 業務를 商業金融에만 限定하는 것은 不可能한 問題이라하야 [illegible] 統制論으로서는 이런 原論에서 出發하여야 하겟스나 地方銀行에 對하야 問題로서 [illegible] 研究하야 適當한 方策을 講究할 [illegible] 合同을 하는 것과 갓다

朝鮮金融界 資金不足傾向

朝鮮內의 金融界에는 新規起業計畫、擴張新設資金의 需要其他 證券金融需要의 增大等時潮에 따라 旺盛한 資金需要가 漸次로 一層이 供給을 超過하야 昨秋以來의 硬塞狀況은 依然緩和되지안코 一般으로 大인 [illegible] 期待는 資金의 需要大膨張、固定의 不可避的傾向을 招來하고 잇다 現象이 相互作用하야 資金招來로잇다

一、朝銀의 正貨準備의 [illegible] 取得은 困難한 狀勢로 新年에 入하야 限外發行을 보지 안는 것은 十日間에 不過하고 恒常 一千萬圓前後의 大限外이다

一、前年來의 產業資金과 不動產值上은 資金固定을 招致하얏다

一、農作의 凶作은 農村貸付를 固定케한 外에 一般의 資金枯 [illegible]

殖產債券發行

殖產債券의 發行은 殖銀과 引受團이 折衝中이든바 十七日 發行條件이 正式으로 決定되엇다

發行總額 一千五百萬圓

發行價格 九十九圓二十五錢

利率 四分利

期間 三個年据置 [illegible]

銀行貸出

한풀꺽긴

預金은좀늘엇다

三月十五日現在 京城組銀의 預金貸出殘高는 預金 一四九、七七〇千圓으로 前月末比三、一八一千圓의 增 貸出二〇八、九三九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면 五、三四四千圓을 減하얏다 無軌道的 膨脹이던 貸出大膨脹傾向도 若干의 訂正으로 反減되엇는바 比二月末、前年同日預金貸出比較는 如左하다(單位千圓▲印減)

	三月十五日	比月	前年同期
預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貸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銀行所持證券漸減

京城組銀의 有價證券所持高는 三月十五日現在二億七千百九十萬七千圓으로 年初에 比較하면 約一千五百五十萬圓의 激減이다

(單位千圓)	
三月十五日	二七一、九〇七
三月 末日	二七八、〇〇六
一月 十五日	二八一、〇八六
一月 末日	二八三、八六九
一月十五日	二八五、九六三

鰮油暫定的協定

六月末까지前年踏襲

東海岸 鰮油肥製造業者 道(江原、慶北、咸南)의 鰮油肥製造業水產組合代表 三千餘名과 總督府 西本水產課長 加藤技師以下 關係局多數、鰮油肥關係者、油肥買收會社側의 合同、朝鮮、朝鮮油脂、三菱等 代表의 參席으로 開催된바 當日은 鰮油에 對하야 協議를 繼續하엿는데 目下 五百萬圓의 資本의 朝鮮硬化油製造會社가 創立中(今年六月中에 成立豫定)이고 合同油脂 에서 京城府民館에서 各道(咸北、咸南 [illegible]) 協定會議가 十八日午前十時부터 開催되어 [illegible] 十二年度協定은 月末으로서 終了됨으로 十二年度 [illegible] 六年四月부터 六年에 亘하여오는 [illegible]

鮮內 [illegible] 十一年度協定 [illegible] 하야 一致를 보지안으면 十二年度協定은 六月末日까지는 十一年度協定을 그대로 繼承하되 但事情에 따라서는 總督府의 指示에 依하야 時日을 遷延할수도 잇다는 暫定的協定의 成立을 보지 안코는 結局 後日에 修正의 成立을 하여도 販賣協定을 하지안으면 西本水產課長의 左와 如히 暫定的協定이 成立되엇다고 [illegible] 十九日午前十時부터 京城府民館에서 繼開하기로 되엇다

小倉 紅蔘 吸收合同 準備中 (三月二十七日 調印豫定) 임으로 그 의 成立을 보지안코는 販賣協定을 하지안으면 [illegible]

取引停止

(三月十五日)雜貨商 京城府阿峴町 三二〇 海成商店 鄭海燕 ▲京城府通仁町二 崔元挾

經濟界消息

○日滿商工業提携 朝滿一如具現化는 朝鮮經濟提携에 잇다하야 總督府殖產局과 滿洲國經濟調查團을 派遣키로 되엇다 右視察團은 朝鮮內一流實業家 十數名을 選拔하야 四月下旬 乃至五月上旬頃 出發、奉天、新京、哈爾濱、大連等의 經濟狀況을 視察하리라는데 目下 兩者間에서 人選中이라한다

○昌和工業設立 纖染織一貫作業＝水登浦昌和工業은 從來人絹染布만 行하엿스나 今回 織機三百臺로 機織染織一貫作業을 行키로 되엇다고

○小林鑛業株申込마감＝小林鑛業의 公開株申込은 十八日午前에 締切되엇는데 大體十二、三倍로 朝鮮內 五千株에 對하야 申込은六萬株에 達한모양이며 푸레미암은五圓가량이라고

○朝鮮織物拂込＝朝鮮織物에서는 進行中의 機臺三倍增設의 資金으로 來五月下旬 新株의 十二圓五十錢拂込을 徵收키로 決定하엿다는데 配當은 現行六分配를 繼續할 豫定이라고

滿洲國經濟視察團

四、五月頃에渡滿

朝滿一如具現化는 朝鮮經濟提携에 잇다하야 總督府殖產局과 [illegible]

洋灰需給推算

總督府殖產局調查에 依한 昭和十二年 洋灰需給推算及 最近三個年間의 需給狀態는 如左하다

移入高 朝鮮間出荷

十年	五五一	三五
十一年	三〇三	一三六
十二年	二九六(豫想)	五五〇(豫想)

朝鮮內需要移出高

十年	五五三	一九
十一年	六八	一四
十二年	七四〇(豫想)	一〇〇(豫想)

殖銀側에서 取入을急히하기爲하야 二千萬圓豫定을一千五百萬圓으로한모양인데 滿鐵債가四分一厘利인데對하야 四分利의發行이注目된다 昨秋의最終發行에比하면條件에잇서 發行價格五十錢高이다

株式

新鍾데이 飛騰

前場鍾新爆發

昨後場大引後 東京市場에서는 鍾紡、鍾新이 再爆發하야 鍾紡은 遂三百圓을 突破하고 鍾新도 二百九十圓臺에 肉迫하게되고 이에따라 諸株一齊堅强하엿스므로 今朝의 氣配는 商强하야 紐育株式의 一層低에도 不拘코 人氣는 依然沸騰하야 當地도 今朝에 鍾新은 二百九十圓丁에 寄付하야 一擧에 六圓四十錢爆發하엿는데 그 後續騰하야 二百九十四圓五十錢을 보이게되자 東新도 大新에도 買氣를보여 東新百六十八圓六十錢 大新百二圓二十錢까지 買進되엇스나 東新、大新은 依然 氣迷를 未脫하야 高價를보인 後에는 利喰과함께다시 再弛하야 結局鍾新은 二百九十四圓丁으로 大引되엇스나 東新八十錢 大新二圓丁으로少弛裡에 大引되엇다

後場堅强

後場은 鍾新一圓四十錢低 大新十錢低 東新二十錢低等으로 少弛裡에 寄付하엿는데 一息은 一息이나 諸株步調는 依然堅强하엿다

鍾紡遂三百圓

鍾紡新舊는 [illegible] 不知의 勢로 [illegible] 할바잇섯는데 [illegible] 京市場에서 鍾紡이 三百圓을 突破하엿스므로 鍾紡에 對한 人氣는 俄然沸騰하야 今朝에는 各地共히 鍾紡은三百圓을 劃하야 三百圓을 突破하야 三百圓臺를 보엿고 鍾新도 二百九十四圓臺를 示現하는等 實로 狂騰의 追從을 不許하는 狂騰狀을 보엿다 이리하야 鍾紡百圓은 벌서 過去의 事實이되고 新鍾의 三百圓突破가 目前에 肉迫하게 되엿다 이에 對하야 東新 大新等은 비록 堅强味는 不失한다하되 伸悩萬更狀을 未脫하야 往年의 自我는 차즐길이업서 王座를 鍾紡에게 讓한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이는 投機株라고 해서 賣叩하고 또賣叩하는 까닭이니 이反動이 오는날이 반

今日의市勢 (十八日)

○ 너무지나치면 反動도 오는法 [illegible] 大膨脹一方이던 京城組銀貸出은 기운이꺽기어

○ 그러나 그동안 變態的으로 보던便에서 머리를 숙일수밧게 업것지……

○ 分野를 確立한것은 當然하일이지만은 大改革이니 不平이 어찌업스리오

○ 懸案의 金融統制는 成案이 發表되엇다

○ 그러면 鍾紡이 活躍의 終幕을 告한後에는 마츰내 東新의 幕이 올것인가? 이것이 今後의 興味津津한 點이다

鍾紡系株擧皆暴騰

鍾紡市場은 鍾紡鍾新에 人氣를 모조리 빼앗기고 이러타할 變化를 認定키 難하나 亦是纖維株에는 買氣가잇서 頑强한데 特히 그中에서도 鍾紡系라고보이는 諸株는 모다 暴騰하엿다。即、昭和人絹은 五十錢高、人造絹毛의 二十錢高、日出紡의 一圓七十錢高、日華紡의 一圓七十錢高、帝纖의 三十錢高는 纖維株의 堅强狀을 말하는것이어니와 東邦人造가 五圓暴騰하야 五十八圓을 보인것과 東洋絹毛가 一圓五十錢이나 騰貴하야 一二、五圓을 보인것은 亦是鍾紡의 人氣의 餘韻이라고 보겟다 其他 九州曹達은 拂込決定의 [illegible] 人氣를 拂하야 四六圓을 보엿는데 日曹는 十錢低 五分半十一圓三十錢 反

前場은? 人氣

株……鍾紡三百圓說을 들은지 오래로되 東新黨은 半信半疑로 엇도라하엿는것이▲이것이 事實化한 今日에는 다만 啞然할밧게▲東新의 從來의 氣勢를 憶見할때 感慨無量하다 이는 時勢의 所致▲그러나 王座를 빼앗긴 東新도 한번은 面目을 세울날이 올걸▲그까닭은 鐘紡化된것이 鍾紡、鍾新도 採算限度에 가면 그만이로되? ▲東新은 採算的으로 사는 株가 아니니까 活躍의 幕이 되면 그 跳躍은 三段跳式?

米……朝鮮의 米需給問題에 對하야 總督府農林課長은 가라사대 昭和十年度에는 三月부터 十月까지의 總消費量이 二百十五萬石이엇다고 本年의 需給問題도 安心하는 모양 ▲春夏期의 消費가 冬期보다 少量일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一百餘萬石으로 八個月間食糧問題를 解決한다함은 窮乏者로서의 너무나 無慮한 말씀 ▲滿洲粟과 蕃薯又는 麥類로써 需給의 不足을 緩和할지는 몰으나 日本內地의 移出을 四百萬石으로 假定하면 食糧의 太半不足을 可期

第三鋼管會社創立

日本鋼管株式會社는 昭和十二年六月一日現在株主에게 對하야 새로設立될 第三鋼管株式會社의 總株數 八十九萬四千株(一株額面五十圓)中 八十二萬九千五百株를 그所有한 株式舊新 第一新共同 [illegible]

日滿아루미로 利喰賣로 五十錢低 同新一圓二十錢低이엇다 日窒新은三十錢低로 四一、二인데 共同海業新은一圓反撥하야 四一、五〇을보엿스며 矢作工業新은 五〇、〇〇 日本電氣은 二圓低로 一八、五〇이엇다

期米 好勢

後場再進

前場伸悩

今朝阪地는 三十三圓六十四錢인 八丁反落을 報하엿스나 東京은 三十三圓四十錢 五丁反高로 株價의 反高를 맞아 當地는 當三丁低中八丁高인 先限三十一圓八十錢으로 始한後 阪地三節七十四錢으로 反騰함을 맞아 八十錢까지 小戾하더니 阪地七節六十五錢으로 反落함을 伴하야 六節六十九錢으로 七八節까지 三本同價를 보인後 阪止七十五錢을 보고 七十二錢으로 七十四錢에 止揚하다

後場反撥

後場은 三十一圓七十五錢에 一丁高로 始場한後 三節七十七錢 四節八十五錢으로 反撥氣味이엇다

當地又復强化

丸大의猛買로

去十六日 阪地三十三圓 七十錢의 第一次高價를 내엇슬때에 當地先限은 三十一圓七十九錢을 一瞥한後 丸大店을 本營으로한 某某有力買方의 利喰으로 勝勢라 사대 一挫하더니 昨午前阪地 三十三圓九十九錢의 第二次 高價를 示하엿슬때부터 利退途中에 잇는 丸大店은 다시 强化하야 今朝阪地 三十三圓六十四錢의 反落을 不拘하고 猛烈히 買進하므로 阪仁의 鞘는 又復百九十丁內外로 縮少되엇다 勿論仕手의 關係로보아서도 當分低落을 期待키 難하거니와 四國의 事情으로 본다할지라도 株式 新規開業時에 앗나 成立한 [illegible] 綿絲는 世界的인 [illegible] 的인 騰勢을 伴하엿슬뿐아니라 日本米實有의 大한 滯貨가 있을 것도 아닌 [illegible] 諸物價 [illegible]

國債 閑散

材料一巡

▲東京【東京債券同盟】 材料가 一巡되엇고 場面은 再次閑散하게되어 內債는 거의 變化가 업고 實物은 二回四分利는 五錢乃至 十錢少弛하엿고 米貨債 西洋의 相場을 옴겨 六分半十錢低 五分半十一圓三十錢 反落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〇〇 ▲一回 四分利 一〇一、六〇 ▲二回四分利 一〇一、〇〇 ▲佛貨 一九七、〇〇

▲大阪 ▲甲五分利 一〇三、一〇 ▲乙號五分利 [illegible] ▲丙號四分 [illegible] ▲一回四分 [illegible] ▲二回四分 [illegible] ▲佛貨 [illegible] ▲米貨六分半 [illegible] ▲滿洲公債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東洋拓殖 [illegible] ▲日產化學 [illegible] ▲九州曹達 [illegible] ▲鐘淵實業 [illegible] ▲東京瓦斯 [illegible] ▲東洋モスリン [illegible] ▲日滿製粉 [illegible]

北中炭鑛東拓進出

東拓의 北中炭鑛着眼은 昨年以來의 일로 東拓鑛業의 技術者를 現地에 派遣하는等 着着準備를 進하고 잇는데 華北十八哩에 잇는 長城煤鑛公司를 買收하고 日中合辦에 依한 東拓鑛業鐵道會社를 新設키로하엿다

今年의春市勢

波瀾重疊可期

例年의 春期에는 大概頹勢를 招來하엿다 예외의 暴騰을 示함은 昨年의 作高의 豫想이 [illegible] 本年은 從來의 正反對의 現象을 呈하야 買勢가 昨年에 比하야 [illegible] 買氣를 [illegible] 不平이 [illegible] 市場에 [illegible] 期에 入하기까지 [illegible] 米價는 아직 高價를 [illegible] 本年端境期에 [illegible] 可期할것이 [illegible]

今日財界 十八日

◆米 (單位圓) 今前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三一八九	六高
大阪期米先限	三三六五	七安
東京期米先限	三三五〇	五安
京城正米一百キロ(三等)	二六五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九〇〇	不變
一斤	一斤三等	[illegible]
ゴウFAQ	全鐵出來	[illegible]

◆株 (單位圓)

	今前止	比前日
朝取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先限單位圓)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仁川反落

今朝阪地는 人氣一轉하야 日本內地米도 期米低와함께 氣配는 二十錢下落하엿다 結局은 全然不振이다 ⊕新限三一、九〇錢 四等三〇、九〇錢 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三一、五〇 ⊕一等白米三一、八〇

釜山少弛

市場實物三千五百叺으로 賣物은 減하엿스나 期米의 疲勞一息으로 消極的으로 買付지안어 小口이나 先約同의 手當實와 當用實가 多少 잇스나 市勢는 十錢少弛이엇나 四等三〇、九 ⊕一等白米三一、八

大邱軟化

產地는 頑强이 實需하나 期米의 反騰을 보고 氣配를 軟化하야 買方은 形勢를 觀望하고잇는모양이다 四等三〇、五〇 一等白米三一、四〇

群山反落

期米의 高價에 人氣는 沈滯에서 依然하나 日本內地로 買付지안는 모양으로 市勢는 二十錢反落을 告하엿다 朝鮮米도 定期反落에 相場이 輕하다 ⊕東京三一、二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三一、三〇

木浦氣崩

定期反落과 適價를 告한 市勢도 不振하야 賣買는 不振하야 三十錢崩落을 演하엿다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三一、〇〇

正米 氣崩

定期反落

京城下押 期米反落과各地 低로 唱價는 十錢下押하엿다 ⊕三等三一、二〇 四等三〇、九〇

金証券 益康 仁川

海外經濟 十七日

[illegible]

銀行券 十七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紡績製品◆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限定代引日步◆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東 趙後鍋取引店 仁川海岸町一丁目 電話一九五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株式 期米 玉 仁川米豆取引所 柳來恒取引店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3939 1572 振替京城2.34
代金引換販賣御願 京城府明治町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